

《黃帝內經》의 成書時代에 관한 고찰

趙學俊 · 尹暢烈*

I. 緒 論

《內經》의 成書時代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그 書名이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 둘째 쓰여진 文字의 시대적 특징, 셋째 醫學理論이 형성과 전래, 넷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등이다.

그러나 錢超塵에 의하면 '成書'란, 즉 文字로 기록하여 하나의 書籍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內經》의 成書는 醫學理論의 形成 및 傳來와는 반드시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¹⁾고 하였다.

한편 《史記·倉公列傳》을 통해서 戰國末 내지 秦代에 醫學理論이 형성되었고 口傳과 師弟間的 傳受를 통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醫學理論의 형성의 시기는 엄밀히 따지면 '成書'시기와 서로 다르다. 전에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하여 《內經》의 成書時代를 考證하는데 혼란을 조성하여 왔다. 明代 高從德은 “今世所傳內經素問 卽黃帝脈書 廣衍于秦越人 陽慶 淳于意 諸長老 其文遂似漢人語 而旨意所從來遠矣”라 하였고, 清代 黃省曾은 《五獄山人集·內經註辨序》에서 '成書'와 醫學理論의 形成의 개념을 혼동하여 “農黃以來 其法已久 考其嗣流 則周之矯之俞之盧 秦之和之緩之詢 宋之文摯 鄭之扁鵲 漢之樓護 陽慶 倉公 皆以黃帝之書 相爲祖述 其倉公診切之驗 獨幸詳於太史 而候名脈理 往往契符於素問 以是知素問之書 其文不必盡古 而其法則出於古也”²⁾라 하였다. 이처럼 高從德과 黃省曾 등은 《內經》이 그 문장은 漢代에 성립된

것이지만 그 理論은 上古에서 起因하였다고 하여, 《內經》의 成書時代가 上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著者は 우선 歷代로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한 고증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上述한 네 가지 중에서 醫學理論의 形成時代를 제외한 나머지 세 방법으로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해 접근하려 한다.

書名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를 살펴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內經》의 문자 특징을 통해서 成書時代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이를 세분하여 다각도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本 論

1.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한 歷代의 考證 研究

현존하는 《內經》의 내용으로 보면 한 시기의 작품이 아니므로 《內經》의 成書 年代에 대해 역대로 서로 다른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를 종합하면 대체로 黃帝時代, 周秦時代, 戰國時代, 秦漢時代의 4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黃帝時代 成立說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에 “昔黃帝之御極也以理身緒餘治天下 坐於明堂之上 臨觀八極 考建五常 以謂人之生也 負陰而包陽 食味而被色 外有寒暑之相盪 內有喜怒之交侵 天昏札瘥 國家代有 將欲斂時五福 以敷錫厥庶民 乃與岐伯上窮天紀 遠取諸物 近取諸身 更相問難 垂法以福萬歲 於是雷公之倫 授業傳之 而內經作矣 歷代寶之 未有失墜”³⁾라고 하였다.

沈作喆은 《寓簡》에서 “內經素問 黃帝之遺書也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p.247

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4-5

3) 王琦 等篇,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17

學者不習其讀 以爲醫之一藝耳 殊不知天地人理 皆至言妙道存焉 文字譌脫錯亂 失其本經”⁴⁾이라 하였다.

顧從德은 《重雕素問序》에서 “今世所傳內經素問 卽黃帝之脈書 廣衍于秦越人陽慶淳于意諸長老 其文遂似漢人語 而旨意所從來遠矣”⁵⁾라고 하였다.

高承은 《事物紀原》에서 “皇甫謐帝王世紀云 黃帝命雷公岐伯 教制九鍼 著內外經 素問之書成出焉”⁶⁾이라 하였다.

馬壽는 《續素問鈔》에서 “素問者 黃帝與岐伯鬼臾區伯高少師少俞雷公六臣 平素問答之書 卽本紀所謂咨於岐伯而作內經者 是也”라 하였다.

杭世駿은 《質疑》에서 “李珠問 黃帝咨於岐伯作內經 今之內經 果是當年之書歟 抑後人所記歟 答云 內經劉向編七錄時 已有之 秦焚詩書 內經想以方術得存 其書深奧精密 非後人所能僞託”⁷⁾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說은 오래 전부터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內經》이 비록 “黃帝問曰” “岐伯答曰”의 형식으로 醫學理論을 闡述하였으나, 바로 이런 점으로 보아 《內經》이 결코 黃帝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으며 黃帝時代에 成書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周秦時代 成立說

司馬光⁸⁾은 《傳家集·書啓·與范景仁第四書》에서 “謂素問爲眞黃帝之書 則恐未可 黃帝亦治天下 豈可終日坐明堂 但與岐伯論醫藥鍼灸耶 此周漢之間 醫者依託以取重耳”⁹⁾라고 하였다.

《四庫全書簡明目錄》에서 “黃帝素問 原本殘闕 士永採陰陽大論以補之 其書云出于上古 固未必然

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

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5

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

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9

8) 司馬光, 字는 君實이며 宋代 夏縣人이다. 일찍이 宋代 哲宗 때 宰相을 지냈으며, 著書에 《資治通鑑》이 있다.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1

然亦必周秦間人 傳述舊聞 著之竹帛 故通貫三才 包括萬變 雖張李劉朱諸人 終身鑽仰 竟無能罄其蘊奧焉”¹⁰⁾이라고 하였다.

胡應麟은 《經籍會通》에서 “醫方等錄 雖亦稱述岐黃 然文字古奧 語致玄渺 蓋周秦之際 上士哲人之作 其徒欲以驚世 竊附黃岐耳”¹¹⁾이라고 하였다.

또한 胡應麟은 《四部正訛》에서 “凡班志所無而驟見六朝後者 往往多因戰國子書殘軼者補綴之 而易其名 以爲眞 則僞莫掩 以爲僞 則眞間存 尤難辨自前輩少論及此 余不敢實竊窺之 觀素問靈樞之卽內經 則余言可概見矣 素問 今亦稱內經 然隋志止名素問 蓋黃帝內外經五十五卷 六朝亡逸 故後人綴輯 而易其名耳”이라 하고, “有僞作于前代 而世率知之者 風後之握奇 岐伯之素問 是也.”라 하고, “素問精深 陰符奇奧 雖非軒後 非秦後書”¹²⁾라 하였다.

(3) 戰國時代 成立說

宋代 이후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內經》은 戰國時代(BC403~BC221)의 작품이라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宋代에서는 邵雍, 程顥, 朱熹 등이 이를 주장하였다.

邵雍¹³⁾은 《皇極經世書》에서 “素問陰符 七國時書也”¹⁴⁾라 하였다.

程顥¹⁵⁾는 “《素問》書 出戰國之末 氣象可見 若是三皇五帝典文 文章自別 其其運處 絕淺近”¹⁶⁾라고 하여, 《素問》이 三皇五帝의 典文이 아니라고 인

1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9-10

1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7

1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7-8

13) 邵雍: 字는 堯夫이며 宋代 范陽人이다. 易學에精通하여 百源學派의 宗師이며 著書에 《觀物篇》 《皇極經世書》등이 있다.

14) 邵雍, 皇極經世書 卷八 心學第十二, 臺灣, 中華書局, 1982, p.319

15) 程顥: 字가 伯淳이고 사람들이 明道先生이라 칭하였으며 易學에精通하였다. 저서에 《識仁篇》 《定性書》 등이 있다.

1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1

식하였다. 이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문자가 없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朱熹는 “黃帝紀云 其師岐伯明於方 世之言醫者宗焉 然黃帝之書 戰國之間猶存 其言與老子出人 予謂此言尤害於理 竊意黃帝聰明神聖 得之於天 其於天下之理 無所不知 天下之事 無所不能 上而天地陰陽造化北發育之原 下而保神練氣 愈疾引年之術 以至其間庶物萬事之理 巨細精粗 莫不洞然於胸次 是以其言有及之者 而世之言此者 因自託焉 以信其說於後世 至於戰國之時 方術之士 遂筆之書 以相稅傳授 如列子之所引 與夫素問握奇之屬 蓋必有粗得其遺言之彷彿者 如許行所道神農之言耳 周官外史所掌 三皇五帝之書 恐不但若是而已也”¹⁷⁾라고 하였다.

明代에서는 桑悅, 方以智 등이 있다.

桑悅은 “素問 乃先秦戰國之書 非黃岐手筆 其稱上古中古 亦一左證 玩其詞意 汪洋浩汗 無所不包 其於五藏收受之法 呂不韋著月令似之 其論五氣鬱散之異 董仲舒郭景純絞五行災異祖之 其論五藏夢虛所見之類 楞嚴經說地獄傲之 論運氣 則可為曆家之準 則 論調攝 則可為養生者之龜鑑 擴而充之 可以調和三光 變理陰陽 而相君之能事畢矣 又豈特醫而已耶”¹⁸⁾라고 하였다.

方以智¹⁹⁾는 “守其業而浸廣之 鑿樞素問也 皆周末筆”²⁰⁾이라고 하였다.

清代에서는 魏荔彤, 崔述 등이 있다.

魏荔彤²¹⁾은 “軒岐之書 類春秋戰國人所為 而託於上古 文順義澤 篇章聯貫 讀之儼如禮經也”²²⁾라고 하였다.

崔述²³⁾은 “世所傳素問一書 載黃帝與岐伯問答之

言 而《靈樞》《陰符經》亦稱爲黃帝所作 至戰國諸子書述黃帝者尤衆”²⁴⁾이라 하였다.

(4) 秦漢時代 成立說

王炎은 《運氣說》에서 “夫素問乃先秦古書 雖未必皆黃帝岐伯之言 然秦火以前 春秋戰國之際 有如和緩秦越人輩 雖甚精於醫 其察天地陰陽五行之用 未能若是精密也 則其言雖不盡出於黃帝岐伯 其旨亦必有所從受矣”²⁵⁾라 하였다.

姚際恆은 《古今僞書考》에서 “漢志有黃帝內經十八卷 隋志始有黃帝素問九卷 唐王冰爲之註 冰以漢志有內經十八卷 以素問九卷 靈樞九卷 當內經十八卷 實附會也 故後人于素問係以內經者 非是 或後人得內經 而衍其說爲素問 亦未可知 素問之名 人難卒曉 予按漢志陰陽家 有黃帝秦素 此必取此素字 又以與岐伯問答 故曰素問也 其書後世宗之 以爲醫家之祖 然其言實多穿鑿 至以爲黃帝與岐伯對問 蓋屬荒誕 無論隋志之素問 卽漢志所載黃帝內外經 竝依託也 他如神農軒轅風後力牧之屬盡然 豈眞有其書乎 或謂 此書有失侯失王之語 秦滅六國 漢諸侯王國除 始有失侯王者 予按其中言黔首 又藏氣法時 日夜半 日平日 日日出 日中日 日日映 日下晡 不言十二支 當時秦人作 又有言歲甲子 言寅時 則又漢後人所作 故其中所言 有古近之分 未可一概論”²⁶⁾이라 하였다.

竇萍은 《酒譜》에서 “內經十八卷 言天地生育人之壽夭繫焉 信三墳之書也 然考其文章 知卒成是書者 六國秦漢之際也”²⁷⁾라고 하였다.

明대의 方孝孺²⁸⁾는 《遜志齋集》에서 “世之僞書衆矣 如內經稱黃帝 汲冢書稱周 皆出於戰國秦漢之人 故其書雖僞 而其文近古 有可取者”²⁹⁾라고 하였

1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2-3

18)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5-6

19) 方以智: 字는 密之이고 號는 曼公으로 明代 桐城人이다. 著書에 《通雅》《物理小識》 등이 있다.

2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8

21) 魏荔彤: 字는 念廷이고 清代 栢鄉人이다. 著書에 《傷寒論本義》《金匱要略方論本義》가 있다.

2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9

23) 崔述: 字는 武承이며 清代 大明人이다.

2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

2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

2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10

2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2

28) 方孝孺: 字는 希直이며 明代 寧海人이다. 著書에 《遜志齋稿》《候成集》《希古堂稿》 등이 있다.

다.

郎瑛은 《七修類稿》에서 “素問文非上古 人得知之 以爲卽全元起所著 猶非隋唐文也 惟馬遷劉向近之 又無此等義語 宋聶古甫云 既非三代以前文 又非東都以後語 斷然以爲淮南王之作 予意鴻烈解中內篇文義 實似之矣 但淮南好名之士 卽欲藉岐黃以成名 特不可曰述也乎 或醫卜未焚 當時必有岐黃問答之書 安得文之以成耳 不然陰陽五行之理學 思固得人身百骸之微 非聖不知 何其致疾之用 死生之故 明然纖悉 此淮南解性命道理處 必竊素問 而詭異奇瓌處 乃蘇飛等爲之也 故宋潛溪以淮南出入儒墨不純正 此是也 且淮南七十二候 與素問註 皆多芍藥榮五物 改麥秋至爲小暑至 較呂氏春秋不同 則王冰當時亦知素問出淮南也 岐黃之文 至於首篇 曰上古中古 而曰今世 則黃帝時果末世邪 又曰 以酒爲漿 以妄爲常 則儀狄是生其前 而彼時人已皆僞耶 精微論中 羅襄雄黃 禁服篇中 軟血而受 則羅與軟血 豈當時事耶 予故以爲岐黃問答 而淮南文成之者耳”²⁹⁾라고 하였다.

祝文彦은 《慶符堂集》에서 “內經素問 後人傳以爲岐黃之書也 其論脈法病證 未必不有合于聖人之意 詞義古朴 未必不有得古人之遺 然自余觀之 確乎爲秦以後書 而非盡岐伯黃帝之言也 當時和扁諸神醫 必有傳于岐黃真諦 而後能彰起死回生之術 則岐黃之微言 宜有二存乎後世者 而後人附會之 以成是書 實非岐黃所著也 或者曰 內經所云黔首 蓋秦時語乎 曰 不但此也 五帝皆至聖 而孔子刪書始唐虞 以唐虞前無書史 而至唐虞乃始也 唐虞書不過數百言耳 而黃帝書 乃至數千萬言乎 且前民利用之事 皆五帝以前 聖人所爲 何他事一無書文可考 而獨治病之書 詳而盡如是耶 又內經一書 文氣堅峭 如先秦諸子 而言理該博 絕似管荀 造詞質實 又類鬼谷 非秦時人書而何 或又曰 人有此等學問 曷不自著姓名 而假托古人耶 曰 如汲冢越絕等書 此人止求其書之傳 不必名之著 猶前人質朴之意也 若今世人一無所見 便妄自居乎作者之林矣”³¹⁾라고 하였다.

2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4

3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6

3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劉奎는 《溫疫論類編》에서 “內經多係後人假托 觀其文章可見 卽如尚書斷自唐虞 其文辭佶屈贅牙 非註解猝莫能醒 內經若果係黃帝時書 其文辭之古奧 又不知當如何者 今觀其筆墨 半似秦漢文字 其爲後人假托不少 況乃累經兵火 不無錯簡魯魚 勢所必然 孟子於武成尙取其二三策 況乃他焉者乎”³²⁾라고 하였다.

陳繹曾은 《文章歐治》에서 “素問善議論理明 故枝節詳盡 而論辨精審 先秦書皆然”³³⁾이라 하였다.

朱載堉은 《樂書》에서 “按素難二經 乃先秦古書 三代名醫 所相授受 秦始皇有令 不燒醫 卜種樹之書 由漢迄今 醫流遵用 雖經歷代變 更未聞有人妄加刪改”³⁴⁾라고 하였다.

《淮南子》에서 “黃帝生陰陽 又云 世俗之人 多尊古而賤今 故爲道者 必託之於神農黃帝 而後能入說 高誘註云 說 言也 言爲二聖所作 乃能入其說於人 人乃用之”³⁵⁾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秦漢時代 成立說은 다시 西漢 初期와 東漢 時代로 세분할 수 다음과 같이 있다.

(가) 西漢初期 成立說

이런 觀點은 《內經》의 文體에서 추측하여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宋代 聶吉甫는 “《素問》既非三代以前之文 又非東都以後語 斷然以爲淮南王作”³⁶⁾이라 하였으니 淮南王은 즉 西漢初期의 淮南王劉安이다. 또한 明代 呂復은 《內經》의 학술사상이 비록 先秦 戰國에서 나왔으나 그 文字成書는 西漢의 學者가 지었다고 인식하고 아울러 《禮記》로 비유를 들었다. 그는 “《內經素問》世稱黃帝岐伯問答之書 及觀其意旨 殆非一時之言 其所撰述 亦非一人之手 …… 而大略如《禮記》之萃有漢儒 而與孔

1956, pp.8-9

3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10

3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4

3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7

3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

36)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84, p.2

子 子思之言 竝傳也”³⁷⁾라 하였다. ‘萃’는 여기에서 《禮記》에 기록된 孔子 子思의 言行을 지칭한다. 漢儒는 즉 西漢時代의 儒家이다.

또한 字義로써 추측하여 판단한 學者도 있으니 가령 “豆”字의 考證을 통해 先秦時代에 “需要用‘豆’了” 這個概念時候 無論是讀書人 還是老百姓 都用 ‘菽’這個字”(‘콩’이라는 개념으로 쓰고자 할 때에는 지식인은 물론이고 늙은이까지 모두 ‘菽’字를 사용하였다.) “先秦時‘豆’ 竝不作‘豆子’講 而它是一種盛肉 盛醬 盛糧食的 工具”(先秦時代에 ‘豆’字는 결코 ‘콩’으로 訓하지 않았고, 고기 醬 양식 등을 담는 그릇의 일종으로 사용하였다.)라 하였다. 또한 先秦時代의 유명한 9종의 經書 子書로 통계를 내보면 그중에 나오는 99회의 “豆”字는 “조금도 예외 없이 물건을 담는 그릇”으로 訓하였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從《內經》中所有‘豆’字 均作‘豆子’講 這一事實來判斷 《素問》 《靈樞》 成書時代 主要是在漢代 當然竝不排除其中也有先秦時代寫成的部分文章 以及成於魏晉的個別部分”(《內經》에 있는 ‘豆’字가 모두 ‘콩’으로 訓하였으니 이런 사실로 판단하면 《素問》과 《靈樞》의 成書時代는 주로 漢代이지만, 당연히 결코 그 중에 先秦時代에 쓰여진 부분의 문장과 魏晉時代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부분이 있음을 배제하지는 못한다.)(北京中醫學院學報 3:17, 1982)라 하였다. 따라서 《內經》에 비록 앞으로 先秦에서 뒤로 魏晉에 이르는 문장이 있지만, 그 성립과 편찬은 西漢時代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素問·上古天真論》에 “昔在黃帝 …… 成而登天”의 문장은 《史記·五帝本記》와 《大戴禮·五帝德》의 기록과 다만 몇 글자만 다르지 그 뜻은 완전히 일치하는데, 두 책의 저작연대가 西漢시대이므로 《黃帝內經》의 성립연대가 春秋戰國 또는 西漢 즈음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西漢時代의 《史記》와 《大戴禮》가 成立된 후임을 알 수 있다.

(4) 東漢時代 成立說

1974년 湖南 長沙 馬王堆에서 발굴된 漢文帝 初

元12年(BC168년)의 墓에서 함께 매장된 두 帛書 《陰陽十一脈灸經》과 《足臂十一脈灸經》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의하여 《內經》의 성립시대가 東漢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되었다. 이유는 上述한 두 脈灸經은 모두 脈은 있으나 穴이 없으며 五行도 없고 비록 약간의 臟腑를 언급하였으나 十二經脈이 안으로 十二臟腑로 연계되는 개념도 없으며 또한 四肢와 內臟이 經脈으로 서로 연계되는 기록도 없으므로 두 帛書는 《內經》以前의 작품이라고 긍정한다. 帛書가 西漢時代의 墓에서 출토되었으니 《內經》의 성립은 마땅히 그 뒤인 東漢이 되어야 한다. 이런 추측은 비록 어느 정도 이치가 있지만 그러나 西漢墓에 함께 매장된 文物은 꼭 西漢時代의 산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中國醫學史略》에서는 상술한 관점을 부정하였는데 이 두 部의 帛書는 비록 西漢墓에서 출토되었지만, 《內經》은 戰國時代의 저작이다. 《中國醫學史略》에서 “漢文帝 初元12년의 墓中에 하나의 醫學資料를 발견하였는데, 한 部는 帛書이고 한 部는 簡牘이었다. 고중에 의하면 쓰여진 연대는 秦漢 즈음보다 늦을 수 없다. 그 내용에 근거하면 內經이전의 저작이라고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戰國時代에 이미 佚失한 巨作으로 볼 수 있다.”³⁸⁾라고 하였다. 이는 곧 이 두 部의 帛書가 출토된 것으로 《內經》의 成立年代가 東漢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검토할 만 하다.

상술한 두 가지 說은 비록 서로 주장하는 成立年代는 같지 않지만 그러나 모두 《內經》중의 內容에는 戰國時代의 부분도 있고, 또한 秦漢 및 그 이후의 작품도 있다는 점을 승인하였다. 그중 西漢시기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그 중에는 先秦시기의 學術思想과 부분적인 문장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呂復이 말하는 “萃有漢儒”도 다만 先秦시기의 學術사상을 문자로 기록하여 문장으로 만든 것은 漢代의 儒學者들이었다는 것을 說明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

37)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84, p.2

38) “漢文帝初元12年墓葬中 發現一批醫學資料 一部分爲帛書 一部分爲簡牘 據考證 其抄寫年代 不會晚於秦漢之際 根據其內容來看 可以肯定是《內經》以前的著作 因此 可以看成是戰國時代已佚的巨著”

을 책 한 部로 편찬한 시대 혹은 《內經》으로 책 이름을 정한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이다. 《內經》의 책이름은 먼저 東漢班固의 《漢書·藝文志》에 처음 나왔고, 또 《素問》《九卷》이라는 이름도 역시 東漢의 張仲景의 《傷寒雜病論》序文에 나온 것으로부터 볼 때 이 책이 최후로 만들어진 시대는 응당 西漢이라는 說은 西漢의 學者들이 戰國先秦時代의 醫學著作을 수집하고 편찬하여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서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內經》을 戰國에서 西漢까지의 醫學을 총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믿을 만 하다고³⁹⁾ 한다.

2. 《內經》의 명칭이 나타난 時代에 대한 文獻考察

東漢에 班固(서기32년~92년)⁴⁰⁾의 《漢書藝文志》에는 7種의 醫書가 실려있는데, “黃帝內經十八卷 外經三十七卷 扁鵲內經九卷 外經十二卷 白氏內經三十八卷 外經三十六卷 旁篇二十五卷 右醫經七家 二百一十六卷”⁴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黃帝內經》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東漢의 張仲景(서기2세기~?)⁴²⁾은 《傷寒雜病論·自序》에서 “勤求古訓 朴採衆方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經 陰陽大論 胎產藥錄 并平脈法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⁴³⁾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素問九卷’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그 후 西晉의 王叔和(서기3세기전반, 張仲景의 後, 皇甫謐의 前에 활동함)⁴⁴⁾는 《脈經》卷三 <肝膽部第一> <心小腸部第二> <脾胃第三> <肺大腸第四> <腎膀胱第五> 등의 末에 “右 素問 針經 張仲景”이라고 하였는데, 그 인용문은 현재의 《素

問》《靈樞》《傷寒論》의 문장과 유사하다. 이로써 西晉에도 《內經》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西晉의 皇甫謐(서기215년~282년)⁴⁵⁾에 이르러 “按七略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鍼經九卷 素問九卷 二十九卷 卽內經也 亦有所亡失 其論遺遠 然稱述多 而切事少 有不編次 比按倉公傳 其學皆出于素問”⁴⁶⁾이라 하였다. 그는 張仲景이 말한 九卷을 針經으로 명칭을 바꾸어 “黃帝內經 十八卷”이 바로 《針經》九卷과 《素問》九卷이라고 하였다.

그 후 唐代에 王冰(서기710-804)은 “班固 漢書藝文志 曰黃帝內經十八卷 素問 卽其經之九卷也 兼靈樞九卷 迺其數焉”⁴⁷⁾이라 하였다. 《靈樞》는 이전에는 ‘針經’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九靈 九虛 등으로도 불리었는데 그가 《內經》을 注한 이후에 《靈樞》의 이름이 확정된 것이다.⁴⁸⁾

그러나 班固의 《漢書藝文志》⁴⁹⁾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劉歆의 《七略》을 採錄할 때 기록한 書目이 실제 그 당시에 행세하던 書名과 부합하지

4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19

46)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黃帝三部針灸甲乙經序,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47) 王琦 等篇,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17

4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40

49) 漢書藝文志: 後漢의 班固가 지었다. 明帝부터 和帝初까지 父業을 이어서 漢書를 編纂하였는데, 高祖부터 地皇四年까지(BC206年-233年)에 이른다. 十二紀 八表 十志 七十列傳으로 모두 100篇이다. 그중 《藝文志》一篇은 劉歆의 《七略》을 수정하여 만들었는데 先秦以前부터 前漢까지 존재하던 모든 서적을 기록하였다. 六藝 諸子 詩賦 兵書 術數 方技 등의 六略 三十八門類를 합하여 五百九十六家 一萬三千餘篇卷에 이른다. 靈, 獻中에 服虔 應邵 및 唐初 顏師古 諸人이 訓注하였다. 그 후에 《七略》이 佚失되고 班固의 漢書가 秦漢의 古籍을 稽考하는 최초의 근거가 되었다. 그 方技略 中에 醫經 經方은 醫家 諸書를 나누어 기록하고 아울러 小敍로 요지를 삼았다. 醫經門에 書目七家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二百十六卷에 이르는데 포함하는 學科가 매우 넓고 天人之道 人身血脈經絡臟腑陰陽之旨 百病色脈之診 鍼灸洗熨之施 百藥性味調合之宜를 들어서 醫經門에 포함하였다. 經方門에 書目十一家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二百七十四卷에 이르는데 대개 諸病投治方과 製方法則 및 服食禁忌 등에 관한 서적들이다.

39) “把本書看成是從戰國到西漢的醫學總匯是大致可信的”

40) 班固(서기32년-92년): 字는 孟堅, 扶風安陵(지금의 陝西省 咸陽)人이다.

41) 李茂如 등,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

4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98

4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0

4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17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成帝 때 劉向 등이 群書를 奉詔 校正하였는데, 그 原書가 篇目이 번잡하고 어지러워서, 分條 重定할 때 같은 것은 합치고 다른 것은 나누어 총괄하는 名目을 취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많은 서적들은 실제 그 당시에 존재하던 서적과 이름과 실체가 다르므로 억지로 이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漢書藝文志》의 小敍를 살펴보면 前漢時代 醫學 遊風의 대개를 알 수 있으므로 考古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⁵⁰⁾

한편 東漢 張仲景의 傷寒雜病論 序文 中에는 ‘素問 九卷’이라고만 언급하고 針經이란 이름이 없으므로, 後人들이 針經이 당시에 九卷이라고 불리었다고 생각했다.⁵¹⁾ 《靈樞》의 成書時代를 명확히 하려면 가장 먼저 《靈樞》의 眞僞問題를 밝혀야 한다. 宋代에 晁公武는 《群齋讀書志》에서 《靈樞》를 “好事者于皇甫謐所集《內經》中抄出之文”이라 하였고, 元代 呂復은 《靈樞》를 王氷이 《九靈經》을 改名하였다. 清代 杭世駿은 《道古堂集》에서 “靈樞文義淺短 爲王氷所僞記”라고 하였다. 晁公武 呂復 杭世駿의 말을 긍정할 수 있는 지를 밝혀보도록 한다.

陸心源은 《儀顧堂題跋》에서 “愚案《靈樞》即《針經》見于《漢藝文志》皇甫謐《甲乙經》序 竝非後出 《靈寶注》以針爲九名 改爲《九靈》又以十二經絡 分爲十二卷 王氷又因《九靈》之名 而改爲《靈樞》其名益雅 其去古益遠 實一書也 請列五證以明之

皇甫謐《甲乙經》序曰 《七略》《藝文志》黃帝內經十八卷 今《針經》九卷 《素問》九卷 二十九卷 即《內經》也 又有《明堂孔穴》《鍼灸治要》皆黃帝岐伯選事也 三部同歸 文多重復 乃撰集二部 使事類相從 爲十二卷 今檢《甲乙經》稱《素問》者 即今之《素問》稱黃帝者 驗其文即今《靈樞》別無所謂《針經》者 即《針經》即《靈樞》可知 其

50) 李茂如,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9-20

5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40

證一也

靈樞卷一 <九針十二原篇> 已云先立針經 是《針經》之名 見于本書 其證二也

王氷云 《靈樞》即《黃帝內經》十八卷之九 與皇甫謐同 當是漢以來相傳之舊說 其證三也

楊上善 隋初人也 所著《黃帝內經太素》《黃帝內經明堂類成》中土久佚 今由日本傳來 其書采錄《靈樞》經文 與《素問》不分軒輊 與《甲乙經》同 是漢唐人所稱《內經》合《素問》《針經》而言 非專指《素問》明矣 其證四也

《靈樞》義精詞奧 <經筋>等篇 非成人不能作 與水素問注相較 精粗深淺 相去懸殊 斷非氷所能僞托 其證五也”⁵²⁾라 하였다.

余嘉錫의 《四庫提要辨證》에도 陸心源의 첫 번째, 세 번째의 두 관점을 보충하였다.

“大皇甫謐以《針經》《素問》爲《內經》 王氷以《素問》《靈樞》爲《內經》 《針經》《靈樞》卷數相合 蓋一書而二名耳 謐去古未遠 其言當有所受之 氷邃于醫學 唐時《針經》具在 必不舍流傳有緒之古書 而別指一書以《內經》 斷可譏矣 《玉海》卷六十三引《書目》⁵³⁾에 《黃帝靈樞經》九卷 黃帝 岐伯 雷公 少俞 伯高問答之語 隋楊上善序 凡八十一篇 《針經》九卷大抵同 亦八十一篇 《針經》以《九鍼十二原》爲首 靈樞以《精氣》爲首⁵⁴⁾ 又間有詳略 王氷以《針經》爲《靈樞》 故席延賞云 《靈樞》之名 時最後出⁵⁵⁾ 是《靈樞》即《針經》 宋人書目 具有明文 其時《針經》尙存 以之兩相對勘 見其文字相同 實一書而二名 故能言之確切如此”⁵⁶⁾라 하였다.

이상의 陸心源의 5가지 증거와 余嘉錫의 辨證은

52)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16-17

53) 《中興館閣書目》이다.

54) 현존하는 《靈樞》는 실제로 <九鍼十二原>이第一篇이고 <精氣篇>은 없어서 中興館閣書目과 같지 않다. 이는 書目은 楊上善本에 근거하였고, 현재 전하는 판본은 史崧이 올린 것으로 별도의 一本이기 때문이다. <精氣篇>은 즉 지금의 <決氣篇>으로 그 篇 머리에 精氣에 대해 논했기 때문인 듯하다.

55) 《漢書藝文志考證》卷十에서 요약 인용하였다. 《宋史·藝文志》에는 席延賞 《黃帝針經音義》一卷이라고 되어 있다.

56)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p.17-18

《針經》《靈樞》가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책은 실제로 하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였다. 或者는 같은 책의 두 종류의 본이지 결코 두 가지의 다른 서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미 전혀 의심할 것이 없다.

《靈樞》의 문자가 《素問》에 비하여 淺近하여 僞書라고 의심한 사람도 있는데, 가령 呂復 杭世駿 丹波元胤 父子는 모두 이러한 論調를 가졌다.

그러나 呂復은 《黃帝內經》이 곧 '素問'과 '針經'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지적한 皇甫謐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西漢藝文志 有內經十八卷 及扁鵲白氏二內經 凡三家 而素問之目乃不列 至隋經籍志 始有素問之名 而不指爲內經"⁵⁷⁾이라 하였다. 그는 《漢書藝文志》에는 '素問'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고, 《隨書經籍誌》에 비로소 '素問'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만 이를 《內經》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黃帝內經'이 곧 '素問'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王冰이 억지로 《漢書藝文志》에 나타난 《黃帝內經》의 卷數에 꿰어 맞추는 것이라고 하면서 "唐王冰乃以九靈九卷 牽合漢志之數 而爲之註釋 復以陰陽大論 託其爲師 張公所藏 以補其亡逸 而其用亦勤矣"라고 하였다.

또한 胡應麟은 "素問 今又稱內經 然隋志止名素問 蓋黃帝內外經五十五卷 六朝亡逸 故後人綴緝 易其名耳"라 하였다. 그는 黃帝內外經 五十五卷이 六朝時代에 散佚한 것을 후인이 다시 모아서 그 이름을 素問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丹波元胤도 胡應麟의 설이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然晉去漢未遠 皇甫氏之所序 或是古來相傳之說 亦不可廢也"라고 하여, 皇甫謐의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黃以周는 '九卷'이 《靈樞》임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黃以周는 《徵季文鈔·黃帝內經九卷集注序》에서

“或又謂《素問》義深 《九卷》義淺 夫《內經》十八卷 乃醫家所集 本非出一人之手 論其義之深 《

九卷》之古奧 雖《素問》不能過 其淺而可鄙者 《素問》亦何減于《九卷》 《九卷》之于《素問》 同屬《內經》 《素問·通評虛實論》中有黃帝骨度脈道筋度之間 而無對語 王注以爲具在《靈樞》中 此文乃彼經之錯簡 皇甫謐謂《內經》十八卷 即此二書 可謂信而有徵 《素問·鍼解篇》之所解 其文出于《九卷》 新校正而言之 又《方盛衰論》言 合五診 調陰陽 已在《經脈》 《經脈》即九卷之篇目 王冰亦言之 則《素問》之文 且有出于《九卷》之後矣 素問宗此經 而謂此經不逮《素問》 可乎"⁵⁸⁾라 하였다.

黃以周가 "《九卷》之古奧 雖《素問》不能過 其淺而可鄙者 《素問》亦何減于《九卷》"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일리가 있다. 가령 《靈樞》의 처음 10편의 글, 즉 <九鍼十二原>부터 <經脈>에 이르기까지 氣象이 크고 그 文體가 굳세고 厚朴하여 《素問》의 諸篇에 비하여 실제로 결코 미치지 못하지 않는다. 특히 <本輸> <小鍼解> 두 篇은 境界가 크고 氣勢가 雄壯하여 실제 《靈樞》의 으뜸이 된다. 따라서 周學海는 《內經評文·靈樞》에서 "非三代上不能作 非三代上之聖人不能作 《爾雅》尚難抗行 世必謂秦漢諸子爲之 試取《呂氏春秋》《淮南子》諸篇 及鄭孔注疏讀之 豈能望其肩背"⁵⁹⁾라 하였다.

'聖人'이라는 說은 비록 취하기 어렵지만, 그 文章의 氣象은 분명히 秦漢 이전의 작품이라는 것은 결코 의심할 것이 없다. 반대로 가령 《素問》의 <宣明五氣> <血氣形志篇>은 文勢가 모두 비교적 淺近하여 《靈樞》의 <外揣> <背腧> <寒熱> 諸篇도 비슷하다. 따라서 文章面에서 《靈樞》《素問》을 비교하면 다소 우열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靈樞》가 뒤에 나왔다는 說도 성립될 수 없다. 당연히 《靈樞》에 《素問》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내용은 비교적 늦은 것도 있다. 가령 《靈樞·陰陽繫日月篇》에 "寅者 正月之生陽也"는 분명히 漢武帝가 太初曆을 반포한 이후의 기재이다.

또한 《脈經》卷七에 <病不可刺證第十二>의 문장 말미에 '出九卷'이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지

5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3-4

58)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18

59)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18

금의 《靈樞·終始》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皇甫謐의 주장과 함께 '九卷'을 '靈樞'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九卷'이 《靈樞》임에 틀림없으며, 《靈樞》九卷이 기본적으로 《素問》九卷과 함께 《黃帝內經》十八卷을 구성하였으며, 결코 《素問》보다 늦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靈樞》와 《素問》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戰國時代에 成書되었지만, 몇몇 篇은 漢代의 것이 끼어 들어갔으므로 결코 一人之手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內經》에 사용된 文字의 考察

《內經》의 文字를 考察하여 보면, 先秦時代의 文辭와 거의 같은 四言을 주로 하는 韻文體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文句나 文辭는 各其 時代의 特性을 지니고 變傳한다고 볼 때, 《內經》의 著述時期를 推定하는데 意義가 있다.

《內經》에 사용된 音韻과 文字, 文體, 文章 등으로 나누어 《內經》의 成書時代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音韻學的 접근⁶⁰⁾

《內經》의 音韻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할 수 있다. 가령 顧炎武 朱駿聲 江有誥는 上古時代의 音韻의 구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內經》의 音韻을 연구하였다. 王念孫은 별도의 분야를 개척하여 音韻만으로 그가 생각한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대개 漢代에 音韻을 사용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前漢 後漢의 音韻과 先秦時代의 音韻이 다르다는 것을 고증하는데 있었다. 지금 《內經》의 音韻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시 새로 古代의 韻部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古代 韻部를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믿을 만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다시 이런 중복되는 작업을 하느라고 허비할 필요는 없다. 이제 《內經》의 音韻을 연구하는 목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째는 音韻上으로 그 成書時代를 고찰하고 둘째 音韻을 이용하여 校勘하는 것이다.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는 문제이다. 이를 요약하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4가지 견해가 있으며, 그 중에서 漢代에 成書되었다는 의견은 주로 西漢이며 그 중에 몇몇 篇章은 東漢에 성립된 것도 있다.

《內經》의 音韻學的인 특징을 고증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즉 먼저 머리 속에 "成書時代"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나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內經》의 音韻 자체에서 출발하여 音韻學上으로 공인된 결론을 운용하여 《內經》의 音韻學的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여 《內經》의 成書時代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音韻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며 유일한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를 면하기 위해 보충 설명할 점은, 그것이 단지 《內經》의 成書時代를 검증하고 감별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內經의 成書時代를 고증함에 있어서 다각도-가령 訓誥나 歷法-에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漢詩에 쓰이는 韻字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¹⁾

韻字表

平聲	上平	東冬江支微魚虞 齊佳灰眞文元寒刪
	下平	先蕭肴豪歌麻 陽經青蒸尤侵單 鹽咸
上聲		董腫講紙尾語 麌齊蟹賄咻阮旱潛銑篠 巧皓哥馬養 梗迥有寢臻
去聲		送宋絳寘未御 遇霽泰卦隊震問願翰 諫霰嘯效號箇禡 漾敬徑有沁勘豔陷
入聲		屋沃覺質物月 曷黠屑藥陌錫職緝 合葉洽

《內經》의 音韻을 깊이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內經》의 어떤 音韻의 分合 및 合韻은 《詩經》의 音韻의 특징과 적지 않게 구별이 있다. 가령 詩經의 音에서 魚部和 侯部는 명확히 구별되는데, 魚部字는 魚部字와 相押하고 侯部字는 侯部字와 相押하여 魚部和 侯部가 合用되는 현상은 매우 적다. 《詩經·國風》에서 侯部字가 相合하는 것을

60)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社, 1992, pp.245-294

61) 李炳基, 漢詩作法,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1996, p.397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翹翹錯薪 言刈其藁(侯) 之子于歸 言秣其駒(侯)(〈漢廣〉)

② 母逝我梁 母發我筍(侯) 我躬不閱 遑恤我後(侯)(〈谷風〉)

③ 靜女其姝(侯) 俟我于城隅(侯) 愛而不見 搔首踟躕(侯)(〈靜女〉)

④ 載馳載驅(侯) 歸唁衛侯(侯)(〈載馳〉)

⑤ 伯也執殳(侯) 爲王前驅(侯)(〈伯兮〉)

⑥ 羔裘如濡(侯) 洵直且侯(侯) 彼其之子 舍命不渝(侯)(〈羔裘〉)

⑦ 山有樞(侯) 隰有榆(侯) 子有衣裳 弗曳弗敷(侯) 子有車馬 弗馳弗驅(侯) 宛其死矣 他人是愉(侯)(〈山有樞〉)

⑧ 綢繆束芻(侯) 三星哉隅(侯) 今夕何夕 見此邂逅(侯) 子兮子兮 如此邂逅(侯)何(〈綢繆〉)

⑨ 維鵲在梁 不濡其味(侯) 彼其之子 不遂其媾(侯)(〈候人〉)

侯部字는 侯部字와 相押하는데, 〈國風〉에 9가지 예가 있고, 魚部字는 魚部字와 相押하는데, 그 예는 매우 많다. 가령 〈周南·桃夭〉에 “桃之夭夭灼灼其華(魚) 之子于歸 宜其室家(魚)”라 하였고, 〈召南·何彼穠矣〉에 “何彼穠矣 唐棣之華(魚) 曷不肅雍 王嬉之車(魚)”라 하였다. 魚部字가 서로 押韻을 이루는 경우는 《詩經》에 매우 많아서 그 예를 이루다 들 수 없어 대략 이상의 두 시로만 예를 보이는데 그친다. 이상의 引用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先秦時代에는 魚部와 侯部가 엄격히 구별되었고, 그들의 주요 原音이 서로 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결코 비슷하지도 않았다. 王力的 《詩經韻讀》에 魚部の 주요 原音이 'a'로 되어 있고, 侯部の 주요 原音은 'o'로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또한 魚侯가 서로 다름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魚部字는 鐸部와 合韻을 이루니 魚鐸合韻이라 칭하고, 侯部字는 屋部字와 合韻을 이루니 侯屋合韻이라고 칭한다. 《詩經》에 魚屋合韻 또는 侯鐸合韻의 예는 없다는 점에서 先秦時代에 魚部와 侯部는 讀音上 비교적 크게 구별된다. 예를 들어 〈召南·鵲巢〉에 “維鵲有巢

維鳩居(魚)之 之子于歸 百兩御(鐸)之”라 하였고, 〈小雅·黍苗〉에 “我徒我御(鐸) 我師我旅(魚) 我行既集 蓋云歸處(魚)”라 하였다. 이로써 魚部字는 鐸部字와 相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侯部字는 屋部字와 相押하지 결코 鐸部字와 相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小雅·角弓〉에 “此令兄弟 綽綽有裕(屋) 不令兄弟 交相爲瘡(侯)”라 하였고, 〈角弓〉第六章에 “毋教猱升木(屋) 如涂涂附(侯) 君子有徽猷 小人與屬(屋)”이라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면 先秦時代에는 魚部와 侯部는 한계가 명확하여 서로 혼동되지 않다가, 漢代에 이르러 魚部字와 侯部字의 讀音이 매우 비슷해져서 漢代의 詩에서 魚部字와 侯部字가 合用되어 거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音韻學者들은 西漢과 東漢에 魚侯가 이미 一部로 합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音韻學者는 비록 몇 가지는 유보하지만 漢代에 魚部와 侯部를 크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魚侯 合韻의 예가 매우 많다고 인정한다. 段玉裁의 《六書韻均表》에 魚部와 侯部에 “詩經及周秦文字 分用盡然”이라 하였고, 또한 “漢人以第四部(侯)第五部(魚)合用者 如田於何所之歌 以口後斗 與所兩黍韻 <日出東南隅>之曲 以隅樓鉤樞斗愚踟踟趨須駒 與數鋤余夫居韻”이라 하였다. 音韻學者들은 魚部와 侯部의 合用 여부로 先秦音韻과 兩漢音韻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羅常培 周祖謨가 共著한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에서 “어떤 古書 또는 文學作品的 시대가 불분명한 것은 이 韻部表에 의하면 확정할 수도 있다. 한 시기의 作品은 일정한 思想 風格 語彙 音韻을 지니고 있으므로 作者가 託古하거나 擬古에 관여하였다더라도 語音上 모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語音의 變遷사에 의하여 眞僞를 辨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素問》과 《靈樞》를 포함한 《內經》의 音韻에 대해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魚部와 侯部가 이미 구별이 거의 없는 현상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점은 先秦時代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漢代의 語音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羅常培 周祖謨가 共著한 《漢魏晉南北朝韻部演

變研究》에서 漢代 音韻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兩漢의 詩文의 韻字를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兩漢의 音은 周秦의 音과 매우 같지 않다. 첫째 韻部의 分음이 같지 않고, 둘째 同部 內의 字類가 변동이 있다.

韻部 分음이 같지 않는 것에 대해, 西漢時代에 가장 현저한 특징은 魚와 侯가 一部로 합쳐지고, 脂와 微가 一部로 합쳐지고 質과 尤(物)이 일부로 합쳐졌다. 그 다음으로 歌와 支, 幽와 宵의 通押은 비교적 많지만 彼此間에 여전히 나뉘어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 各部는 모두 周秦時代 音의 구분과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陰聲 陽聲⁶²⁾ 入聲⁶³⁾에 모두 27部⁶⁴⁾가 있다. 字類上의 변동에 있어서는, 詩文에서 韻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표현된 是部의 '尤'韻字인 '牛' '丘' '久'字와 脂韻의 '龜'字는 幽部로 轉入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비교적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 魚部의 '馬'韻字인 '家' '華' 등은 歌部로 轉入되는 추세이고, 蒸部의 '雄'字는 冬部로 轉入되는 추세로서, 모두 周秦時代의 音과 분명히 같지 않다.

東漢時代의 韻部의 數는 西漢과 서로 같으나, 魚部의 '馬'韻字(家 華)가 歌部로 轉入되고, 歌部의 '支'韻字(奇 爲)는 支部로 轉入되고, 蒸部의 '東'韻字(雄 弓)는 冬부로 전입되고, 陽部의 '庚'韻字(京 明)는 耕部로 轉入되었으니, 이는 모두 매우 큰 변동이다.

다음에는 魚侯 脂微 質物 文眞의 合韻으로 《內經》의 音韻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魚와 侯

62) 陰聲 陽聲: 중국 音韻學에서 '-m, -n, -ng'으로 끝나는 音을 陽聲(陽韻)이라 하고 기타의 모음으로 끝나는 音을 陰聲(陰韻)이라 한다.

63) 고대 중국어 四聲의 하나로써 어떤 방언에는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비교적 짧고 급한데 자음 韻尾를 대동할 경우도 있다.

64) 羅常培 周祖謨는 先秦의 古韻을 31部로 나누었는데, 즉 之職蒸 幽沃冬 宵藥 侯屋東 魚鐸陽 歌 支錫耕 脂質眞 微尤(物)詢(文) 祭月元 盍談 緝侵이다. 그들은 漢代에는 魚侯가 이미 魚部에 합쳐지고 脂微가 脂部에 합쳐지고 眞文이 眞部에 합쳐지고 質物이 質部에 합쳐짐으로써 31部에서 4部가 줄어들어 27部가 된다고 하였다.

先秦時代에 魚部와 侯部는 2部로 나뉘었다. 古音學者들이 이에 대해 인식했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高炎武는 魚部와 侯部를 1部로 보아서, 이 韻部는 《廣韻》의 魚虞模侯 및 馬部의 一部字(《音學五書·古音表》에서 보인다)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의 제자 江永이 지은 《古韻標準》에는 侯部를 魚部에서 독립시켰으나, "侯字自當別出一韻 次于尤幽之間"이라 하여 애석하게도 侯部를 幽部에 귀속하였다. 江永이 魚와 侯를 2部로 나눌 때 考證이 매우 정밀하지 않았다. 그가 侯韻중에 모든 "從吳 從無 從巫 從丁 從瞿 從夫 從專 從夸"등 字를 모두 魚部에 귀속한 것은 쓸 만 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禹 儒 需 須 朱 誅 兪 與 廚 拘 등 字가 모두 幽部에 귀속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점은 도리어 考證이 정확하지 않아서 쓸 만하지 않다. 후에 段玉裁가 《六書音均表》에서 드디어 정식으로 魚部와 後部를 나누기 시작하여, 侯部가 魚部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幽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1개의 韻部가 되었다. 段玉裁는 "顧氏誤合侯于魚爲一部 江氏又誤合侯于尤爲一部 皆考之未精 顧氏合侯于魚 其所引據 皆漢後轉音 非古本音也 侯古音近尤 而別于尤"라고 지적하였다. 후의 音韻學者들은 모두 段玉裁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인정한다.

古音 魚部는 《廣韻》에서 魚語御 3韻의 部 전부, 模姥暮 3韻의 部 전부, 虞麌遇 3韻의 일부분 및 麻馬禡 3韻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段玉裁 《六書音均表》의 諧聲表에 의하면 아래 열거한 모든 字 또는 아래에 열거한 모든 字가 形聲字의 聲符가 되는 字는 모두 古音 魚部에 속한다.

魚 余 與 旅 者 古 車 足 巨 且 去 于 庀 父 瓜
 乎 壺 無 圖 土 女 烏 段 家 巴 牙 五 圉 寧 部
 鼠 黍 雨 午 戶 呂 鼓 股 馬 下 寡 夏 吳 武 羽
 馬 兪 素 業 聲 瞿 步 互 壘 甫 母 鹵 度

古音 侯部는 《廣韻》의 侯厚候 3韻의 部 전부 및 虞麌遇 3韻의 일부분인 愚 禺 隅 芻 株 濡 榆 趨 駒 主 愈 數 樹 附 등을 포함한다. 육서음운표의 해성표(단 옥재는 후부에 입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후부의 입성을 제거하였다)에 의하면 아래 열거한 모든 字

또는 아래 열거한 자로써 형성자의 성부로 삼는 자는 모두 고음 후부에 속한다.

侯 區 句 婁 禺 錫 需 兪 爻 朱 取 豆 口 后 後
厚 斗 主 史 侮 奏 蕞 屬 具 付 鼓

다음으로 <靈樞>와 <素問>에 나타난 魚部字와 魚部字의 相押, 侯部字와 侯部字의 相押, 魚部字와 侯部字의 合押의 예를 모두 열거한 뒤에 분석을 하도록 한다.

(㉠) 魚部字와 魚部字의 相押

- ① 宛陳則除(魚)之, 邪勝則虛(魚)之(九鍼十二原)
- ② 言實與虛(魚), 若有若無(魚)(九鍼十二原)
- ③ 無實實 無虛虛(魚). 損不足而益有餘(魚)(九鍼十二原)
- ④ 右主推之, 左持而禦(魚)之, 氣至而去(魚)之(九鍼十二原)
- ⑤ 五臟之所留處(魚), 闕數之度(魚)(本輸)
- ⑥ 有所大怒(魚), 氣上而不下(魚)(邪氣藏府病形)
- ⑦ 故補則實, 瀉則虛, 痛雖不隨針, 病必衰去(終始)
- ⑧ 刺太陰以予(魚)之, 取厥陰以下(魚)之, 取巨虛下廉以去(魚)之(四時氣)
- ⑨ 治癲疾者, 常與之居(魚), 察其所當取之處(魚)(癲狂)
- ⑩ 男子如蠱(魚), 女子如阻(魚)(熱病)
- ⑪ 周痺者, 在於血脈之中, 隨脈以上, 隨脈以下(魚), 不能左右, 各當其所(魚)(周痺)
- ⑫ 此陰氣盛而陽氣盛, 陰氣疾而陽氣徐(口問)
- ⑬ 寒氣客於皮膚(魚), 陰氣盛, 陽氣虛(魚)(口問)
- ⑭ 聞之以其所苦(魚), 雖有無道之人, 惡有不聽者乎(魚)(師傳)
- ⑮ 胃滿則腸虛(魚), 腸滿則胃虛(魚), 更虛更滿, 故氣得上下(魚),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魚)(平人絕穀)
- ⑯ 夫心系與肺, 不能上舉(魚), 乍上乍下(魚)(五癰津液別)
- ⑰ 腑臟之在中也, 各以次舍(魚), 左右上下(魚), 各如其度也(五閱五使)
- ⑱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魚), 小者如針, 大者如筋(魚)(血絡論)

⑲ 正邪從外襲內, 而未有定舍(魚), 反淫於臟, 不得定處(魚)(淫邪發夢)

⑳ 肝氣盛, 則夢怒(魚), 肺氣盛, 則夢恐懼(魚)(淫邪發夢)

㉑ 夫百病之所始生者, 必起於燥濕寒暑風雨(魚)陰陽喜怒飲食居處(魚)(順氣--日分爲四時)

- ㉒ 謁肝小短舉(魚)者, 心下(魚)(本藏)
- ㉓ 視色上下(魚), 以知病處(魚)(五色)
- ㉔ 屬意勿去(魚), 乃知新故(魚)(五色)
- ㉕ 候虛實之所在者, 能得病之高下(魚), 知六腑之氣街者, 能知解結契紹於門戶(魚)(衛氣)
- ㉖ 後以鹹苦(魚), 化穀乃下(魚)(上隔)
- ㉗ 審按其道以予(魚)之, 徐往徐來以去(魚)之(寒熱)
- ㉘ 天有風雨(魚), 人有喜怒(魚)(邪客)
- ㉙ 因衰而補(魚), 如是者, 邪氣得去(魚), 眞氣堅固(魚), 是謂因天之序(魚)(邪客)
- ㉚ 余願盡聞少序(魚) 別離之處(魚)(邪客)
- ㉛ 補必閉膚(魚), 輔針導氣, 邪得淫泆, 眞氣得居(魚)(邪客)
- ㉜ 因其分肉, 左別其膚(魚), 微內而徐端之, 適神不散, 邪氣得去(魚)(邪客)
- ㉝ 太陽之人, 居處于于(魚), 好言大事, 無能而虛設, 志發於四野(魚)(通天)
- ㉞ 知其所苦(魚), 膈有上下(魚)(官能)
- ㉟ 是故工之用針也, 知氣之所在, 而守其門戶(魚), 明於調氣, 補瀉所在, 徐疾之意, 所取之處(魚)(官能)
- ㊱ 泄奪其有餘(魚), 乃益虛(魚)(刺節眞邪)
- ㊲ 下有漸茹(魚), 上生葦蒲(魚)(刺節眞邪)
- ㊳ 虛風之賊傷人也, 其中人也深, 不能自去(魚). 正風者, 其中人也淺, 合而自去(魚), 其氣來柔弱, 不能勝眞氣, 故自去(魚)(刺節眞邪)
- ㊴ 寒與熱相搏, 久而留而內著(魚), 寒勝其熱, 則骨疼肉枯(魚)(刺節眞邪)
- ㊵ 從實去虛(魚), 補則有餘(魚)(癰疽)
- ㊶ 巷聚邑居(魚), 則別離異處(魚), 血氣猶然, 請言其故(魚)(癰疽)
- ㊷ 下陷肌膚(魚), 筋髓枯(魚), 內連五臟, 血氣竭, 當其癰下(魚), 筋骨良肉皆無餘(魚), 故命曰疽(魚)(癰疽)

이상은 《靈樞》에 있는 魚部字와 魚部字의 相押에 대한 예이다. 《靈樞》에 있는 魚部字가 相押한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 대부분을 모두 여기에 모아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는 《素問》에 있는 魚部字 相押의 예를 들었다.

④③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魚)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魚)(生氣通天論)

④④ 清靜則肉腠閉拒(魚) 雖有大風苛毒 弗之能害 此因時之序(魚)也(生氣通天論)

④⑤ 喜怒不節 寒暑過度(魚) 生乃不固(魚)(陰陽應象大論)

④⑥ 彼春之暖 爲夏之暑(魚) 彼秋之忿 爲冬之怒(魚) 四變之動脈與之上下(魚)(脈要精微論)

④⑦ 夏日在膚(魚) 泛泛乎萬物有餘(魚) 秋日下膚(魚) 蟄蟲將去(魚)(脈要精微論)

④⑧ 來疾去徐(魚) 上實下虛(魚)(脈要精微論)

④⑨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魚) 虛則目眩暈無所見 耳無所聞 善恐如人將捕(魚)之(藏氣法時論)

④⑩ 毒藥攻邪(魚) 五穀爲養 五果爲助(魚)(藏氣法時論)

④⑪ 吸則內針 無令氣忤(魚) 靜以久留 無令邪布(魚) 吸則轉針 以得氣爲故(魚) 候呼引針 呼盡乃去(魚) 人氣皆出 故命曰瀉(魚)(離合眞邪論)

④⑫ 其氣以至 適而自護(魚) 候吸引針 氣不得出 各在其處(魚) 推闔其門 令神氣存 大氣留止 故命曰補(魚)(離合眞邪論)

④⑬ 形度骨度脈度筋度(魚) 何以知其度(魚)也(通評虛實論)

④⑭ 此所謂聖人易語(魚) 良馬易御(魚)也(氣穴論)

④⑮ 余已知氣穴之處(魚) 游針之居(魚)(氣穴論)

④⑯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魚) 其生於陰者 得之飲食居處(魚) 陰陽喜怒(魚)(調經論)

④⑰ 凡欲診病者 必問飲食居處(魚) 暴樂暴苦(魚) 始樂後苦(魚) 皆傷精氣 精氣竭絕 形體毀沮(魚)(疏五過論)

④⑱ 悲哀喜怒(魚) 燥濕寒暑(魚)(解精微論)

④⑲ 雲朝北極 濕化乃布(魚) 澤流萬物 寒數於上 雷動於下(魚)(六元正紀大論)

⑥⑩ 陽乃布(魚) 民乃舒(魚)(六元正紀大論)

⑥⑪ 化氣乃數(魚) 善爲時雨(魚)(六元正紀大論)

⑥⑫ 彼春之暖 爲夏之暑(魚) 彼秋之忿 爲冬之怒(魚)(六元正紀大論)

《靈樞》 《素問》의 魚部字 相押은 모두 62예인데, 그 중에 《靈樞》는 42가지이고, 《素問》은 20가지이다. 韻이 들어간 자는 다음과 같다.

除虛無余御去處度怒下予居蠱阻
所徐膚苦舉舍筋懼雨者序補于野戶
茹蒲著枯暑邪故固拒捕助忤布護語
舒敷

상술한 62예의 魚部字 相押 중에서 《內經》의 魚部字는 《詩經》의 魚部字는 마찬가지로 相押한다. 《內經》의 魚部의 讀音은 先秦의 魚部 讀音과 크게 구분이 없다.

(ㄴ) 侯部字와 侯部字의 相押

① 奇邪離經, 不可勝數(侯), 不知根結. 五臟六腑(侯), 折關敗樞(侯), 開闔而走(侯), 陰陽大失, 不可復取(侯)(根結)

② 以知爲數(侯), 以痛爲輸(侯)(經筋)

③ 暴擊癱眩, 足不任身, 取天柱(侯), 暴痺內逆, 肝肺相搏, 血溢鼻口(侯), 取天府(侯)(五邪)

④ 心痛不可刺者, 中有盛聚(侯), 不可取于俞(侯)(厥病)

⑤ 五藏六府(侯), 心爲之主(侯)(師傳)

⑥ 腸胃之中, 當留穀二斗(侯), 水一斗五升, 故平人日再後(侯)(平人絕穀)

⑦ 五臟六腑(侯), 心爲之主(侯), 耳爲之聽, 目爲之候(侯)(五癯津液別)

⑧ 其端正敦厚(侯)者, 其血氣和調, 刺此者, 無失常數(侯)也(逆順肥瘦)

⑨ 余聞刺有五變, 以主五輸(侯). 願聞其數(侯)(順氣一日分爲四時)

⑩ 通其營輸(侯), 乃可傳於大數(侯)(禁服)

⑪ 夫百病變化, 不可勝數(侯), 然皮有部, 肉有桂, 血氣有輸(侯)(衛氣失常)

⑫ 五味入於口(侯)也, 各有所走(侯)(五味論)

⑬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注於脈, 則血氣走(侯)之, 血與鹹相得則凝, 凝則胃中汁注(侯)之(五味)

論)

⑭ 故本輸(侯)者, 皆因其氣之虛實疾徐而取(侯)之(邪客)

⑮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 隨隨然, 顯顯然, 愉愉(侯)然, 曠曠然, 豆豆(侯)然(通天)

이상은 《靈樞》에 있는 侯部字끼리의 相押의 예이고, 아래는 《素問》에 있는 侯部字끼리의 相押의 예이다.

⑯ 膝者筋之府(侯) 屈伸不能 行則僂附(侯)(脈要精微論)

⑰ 人有此三者 是謂壞府(侯) 毒藥無治 短針無取(侯)(寶命全形論)

⑱ 夏極治經俞(侯) 秋極治六腑(侯)(通評虛實論)

⑲ 其穀豆(侯) 其果栗 其實濡(侯)(五常政大論)

이상에서 《內經》에 있는 侯部字끼리의 相押에 대해서 모두 19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靈樞》는 15가지이고, 《素問》은 4가지이다. 侯部字끼리의 相押은 魚部字끼리의 相押에 비하여 적다. 이는 侯部字의 많은 수가 魚部字와 相押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런 통계는 兩漢의 音韻과 先秦의 音韻의 구별을 연구하고, 漢代의 魚韻과 侯韻의 관계를 관찰하고, 《內經》의 成書時代를 감별하는데 모두 매우 도움이 된다. 《內經》에 侯部字의 相押이 왜 이렇게 적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內經》에 있는 魚部와 侯部의 相押 및 그 유관한 문제를 독립하여 설명하고 비교해 보겠다.

《內經》에 있는 侯部의 脚韻字는 주로 다음과 같다.

數樞走輸柱口府聚俞主斗后候厚
部注取顯愉豆附濡拄腑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古韻의 侯部는 《廣韻》의 侯厚候 세韻字 및 《廣韻》의 虞麌遇 세韻字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아래에 《內經》에 있는 侯部韻字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漢代 魚와 侯의 韻部 관계를 깊이 인식하는데 많은 밑음을 줄 것이다.

虞韻 合口三等字⁶⁵⁾: 樞 愉 俞 濡 取 顯

65) 等字(等韻): 이전의 半切을 위주로 한 音韻 研究

麌韻 合口三等字: 數 柱 拄 主 府 腑 聚 取

遇韻 合口三等字: 數 注 附

厚韻 開口一等字: 部 走 口 斗 后 厚

候韻 開口一等字: 豆 候

(ㄷ) 魚侯合用

① 經脈十二, 絡脈十五(魚), 凡二十七氣以上下(魚).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腧(侯)(九鍼十二原)

②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侯), 刺之而氣至, 乃去(魚)之(九鍼十二原)

③ 有所用力舉重, 若入房過度(魚), 汗出浴水, 則傷腎. 黃帝曰, 五臟之中風, 奈何 岐伯曰, 陰陽俱虛, 邪乃得住⁶⁶⁾(侯)(邪氣藏府病形)

④ 此亦本末根葉之出候(侯)也, 故根死則葉枯(魚)矣(邪氣藏府病形)

⑤ 必審五臟變化之病, 五脈之應, 經絡之實虛(魚), 皮之柔脆(魚), 而後取(侯)之也(根結)

⑥ 內合於五臟六腑(侯), 外合於筋骨皮膚(魚)(壽夭剛柔)

⑦ 病在皮膚無常處(魚)者, 取以鑱針於病所(魚), 膚白勿取(侯)(官鍼)

⑧ 邪氣獨去(魚)者, 陰與陽未能調而疾知愈(侯)也(終始)

⑨ 從腰以下(魚)者, 足太陰陽明皆主(侯)之(終始)

⑩ 不盛不虛(魚), 以經取(侯)之(經脈)

⑪ 欲獨閉戶塞牖而處(魚).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侯)(經脈)

⑫ 陽氣不足(侯), 陰氣有餘(魚)(五邪)

⑬ 足髀不可舉(魚)者, 側而取(侯)之(厥病)

⑭ 耳者, 宗脈之所聚(侯)也, 故胃中空即宗脈虛(魚), 虛即下(魚)(口問)

⑮ 黃帝曰, 六氣者, 貴賤何如(魚). 岐伯曰, 六氣者, 各有部主(侯)也, 其貴賤善惡, 可爲常主(侯)(決氣)

에 반하여, 唐末·宋初부터 音을 開口音·合口音으로 나누고, 각각 一·二·三·四等으로 나누어, 지금의 音聲學의 研究를 위한 中國의 音韻學을 말한다.

66) 住: 《靈樞》에는 '住'字로 되어 있으나 《靈樞略》에는 '住'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는 《靈樞略》을 따라서 '住'라 하였다.

- 16 水穀入於口(侯), 輸於腸胃(侯), 其液別爲五(魚)(五臟津液別)
- 17 甚饑則夢取(侯), 甚飽則夢予(魚)(淫邪發夢)
- 18 奇邪淫溢, 不可勝數(侯), 願聞其故(魚)(五變)
- 19 痺之高下有處(魚)乎? 少俞答曰 欲知其高下者, 各視其部(侯)(五變)
- 20 五藏六府(侯), 邪之舍也, 請言其故(魚)(本藏)
- 21 人生十歲, 五藏始定, 血氣已通, 其氣在下(魚), 故好走(侯)(天年)
- 22 五穀之氣, 皆不能勝苦(魚), 苦入下脘, 三焦之道皆閉而不通, 故變嘔(侯)(五味)
- 23 願聞二十五人之形, 血氣之所生, 別而以候(侯), 從外知內何如(魚)(陰陽二十五人)
- 24 先立五形金木水火土(魚), 別其五色, 異其五形之人, 而二十五人具(侯)矣(陰陽二十五人)
- 25 脈之上下(魚), 血氣之候(侯)(陰陽二十五人)
- 26 血氣皆少則無鬚(侯), 感於寒濕則善痺, 骨痛爪枯(魚)也(陰陽二十五人)
- 27 風雨襲虛(魚), 則病起於上, 是謂三部(侯)(百病始生)
- 28 蟲寒則積聚(侯), 守於下管, 則腸胃充郭, 衛氣不營, 邪氣居(魚)之(上膈)
- 29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侯)也, 精神之所舍(魚)也(邪客)
- 30 人有八虛(魚), 各何以候(侯)(邪客)
- 31 各處色部(侯), 五藏六府(侯), 察其所痛, 左右上下(魚)(官能)
- 32 左引其樞, 右推其膚(官能)
- 33 夫子乃言刺府輸(侯), 去府病, 何輸使然, 願聞其故(魚)(刺節真邪)
- 34 不上不下(魚), 鈹石所取(侯)(刺節真邪)
- 35 盡刺諸陽之奇輸(侯), 未有常處(魚)也(刺節真邪)
- 36 邪客于風府(侯), 病循膂而下(魚), 衛氣一日一夜, 常大會于風府(侯)(歲露)
- 37 發於胸, 名曰井疽(魚), 其狀如大豆(侯)(癰疽)
- 38 發於膺, 名曰甘疽(魚), 色青, 其狀如穀實枯萸(侯)(癰疽)

이상은 《靈樞》에 있는 魚侯合用の 예이고, 아래는 《素問》에 있는 魚侯合用の 예이다.

- 39 其音羽(魚) 其數六 其臭腐(侯)(金匱真言)
- 40 故邪風之至 疾如風雨(侯) 故善治者 治皮毛(魚) 其次治肌膚(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侯)(陰陽應象大論)
- 41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魚) 觀權衡規矩(魚) 而知病所主(侯)(陰陽應象大論)
- 42 未出地者 命曰陰處(魚) 名曰陰中之陰 則出地者 命曰陰中之陽 陽予之正 陰爲之主(侯)(陰陽離合論)
- 43 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魚)也 其地下(魚) 水土弱 霧露之所聚(魚)也 其民嗜酸而食附(侯)(異法方宜論)
- 44 夏刺絡俞(侯) 見血而止 盡氣閉環 痛病必下(魚)(診要經終論)
- 45 春刺冬分 邪氣著藏 令人脹 病不愈(侯) 又且欲言語(魚)(診要經終論)
- 46 夏刺秋分 病不愈(侯) 必令人心欲無言 惕惕如人將捕(魚)之(診要經終論)
- 47 夏刺冬分 病不愈(侯) 令人少氣 時欲怒(魚)(診要經終論)
- 48 赤欲如白囊朱(侯) 不欲如赭(魚)(脈要精微論)
- 49 甚飽則夢予(魚) 甚飢則夢取(侯)(脈要精微論)
- 50 病在肺 愈於冬 冬不愈(侯) 甚於夏(魚)(藏氣法時論)
- 51 兩隅在下(魚) 當其下隅者 肺之俞(侯)也(血氣形志)
- 52 復下一度(魚) 心之俞(侯)也(血氣形志)
- 53 復下一度(魚) 左角肝之俞(侯)也 右角脾之俞(侯)也(血氣形志)
- 54 復下一度(魚) 腎之俞(侯)也 是爲五臟之俞(侯) 灸刺之度(魚)也(血氣形志)
- 55 夫聖人之起度數(侯)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魚)(離合真邪論)
- 56 彈而怒(魚)之 抓而下(魚)之 通而取(侯)之(離合真邪論)
- 57 汗出頭痛 身重惡寒 治在風府(侯) 調其陰陽 不足則補(魚) 有餘則瀉 大風頸項痛 刺風府(侯)(骨空論)
- 58 邪氣客於風府(侯) 循膂而下(魚) 衛氣一日一夜大會於風府(侯)(瘡論)

- 59 此邪氣客於頭項 循膂而下(魚)者也 故虛實不同 邪中異所(魚) 則不得當其風府(侯)也(癰論)
- 60 循脈上下(魚) 貫五臟 絡六腑(侯)也(痺論)
- 61 膽虛氣上逆而口爲之苦(魚) 治之以膽募俞(侯)(奇病論)
- 62 夫子之開余道也 目未見其處(魚) 耳未聞其數(侯)(氣穴論)
- 63 余非聖人之易語(魚)也 世言眞數開人意 今余所訪問者眞數(侯)(氣穴論)
- 64 水俞五十七處(魚)者 是何主(侯)也(水熱穴論)
- 65 夫子言治熱病五十九俞(侯) 余論其意 未能領別其處(魚)(水熱穴論)
- 66 知上不知下(魚) 知先不知後(侯)(方盛衰論)
- 67 願夫子推而次之 從其類序(魚) 分其部主(侯) 別其宗司 昭其氣數(侯) 明其正化 可得聞乎(魚)(六元正紀大論)
- 68 金木水火土(魚) 運行之數(侯)(六元正紀大論)
- 69 陰陽卷舒(魚) 近而無惑 數之可數(侯)(六元正紀大論)
- 70 雲趨雨府(侯) 濕化乃敷(魚)(六元正紀大論)
- 71 奇之不去(魚) 則偶(侯)之 是謂重方 偶之不去(魚) 則反佐以取(侯)之(至眞要大論)
- 72 差有數(侯)乎 岐伯曰: 又凡三十度(魚)也(至眞要大論)

이상의 72가지 예는 《內經》중의 魚侯合韻의 증거이다. 그 중 《靈樞》는 38가지이고 《素問》은 34가지이다. 魚部字와 相押하는 侯部字는 다음과 같다.

膂 住 候 數 取 府 愈 主 走 聚 口 部 嘔 具 須
樞 輸 豆 蕞 腐 胙 朱 俞 后

의미 있는 것은 이 字들이 서로 押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魚部와 相押하며, 數的으로도 侯部字끼리 相押하는 數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侯部字가 독립적인 것이라면 위에 열거한 字들은 侯部字끼리 相押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屋部字와 相押하여 侯와 屋이 對를 이루는 押韻型式을 이루어야 하며, 魚部字와 相押할 수도 없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魚侯가 合用되는 예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납득이 갈만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內經》에서 원래 侯部字에 속한, 위에 열거한 字들이 이미 魚部에 合병된 것이다. 이 字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廣韻》虞夔遇 세 韻에 속하는 자로서, 樞輸俞膂愈取聚主住府胙腐數具須朱數 등이 포함되고, 또 하나는 《廣韻》의 侯厚候 세 韻에 속하는 字로서 走口部后候藁嘔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 虞夔遇 세 韻의 字가 魚部에 合병된 것이 가장 명확하다. 이는 古音의 魚部字가 주로 三等字이고 虞夔遇 또한 주로 三等字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內經》에 있는 侯部에 대한 분석에서, 侯部字가 魚部字에 合병된 字중에 또한 侯厚候 세 韻字의 일부가 있는데, 다만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結論(內經의 魚侯는 一部로 合쳐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內經》에서 魚侯가 이미 魚部로 合쳐졌다. 이런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先秦時代에 魚部는 入聲인 鐸部와 相押하여 魚鐸의 對를 이루며 侯部는 入聲의 屋部와 相押하여 侯屋이 對를 이루어, 魚屋이 相押하거나 侯鐸이 相押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다. 《內經》에는 魚屋이 相押하거나 侯鐸이 相押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데, 이는 다시 魚侯의 한계가 이미 매우 명확하지 않았으며 2부의 讀音이 이미 매우 비슷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取之委陽者, 屈伸而索(鐸)之, 委中者, 屈而取(侯)之(邪氣藏府病形)

② 形氣不足(屋), 病氣有餘(魚), 是邪勝也, 急瀉(魚)之(根結)

③ 凡刺之屬(屋), 三刺至穀氣, 邪僻妄合, 陰陽易居(魚)(終始)

④ 孫絡之盛而血者疾誅(侯)之, 盛者瀉(鐸)之, 虛者飲藥以補(魚)之(脈道)

⑤ 血氣之輸(侯), 輸於諸絡(鐸), 氣血留居(魚), 則盛而起(衛氣失常)

⑥ 有餘不足(屋), 當補則補(魚), 當瀉則瀉(魚)(百

病始生)

- ⑦ 補其不足(屋), 瀉其有餘(魚)(邪客)
- ⑧ 安其容儀, 審有餘不足(屋), 盛則瀉之, 虛則補(魚)之, 不盛不虛, 以經取(侯)之(通天)
- ⑨ 視前痛者, 常先取(侯)之. 大寒在外, 留而補(魚)之, 入於中者, 從合瀉(鐸)之(官能)
- ⑩ 虛者不足(屋), 實者有餘(魚)(刺節眞邪)
이상은 《靈樞》의 예이다.
- ⑪ 智者察同 愚者察異 愚者不足(屋) 智者有餘(魚)(陰陽應象大論)
- ⑫ 表裏當俱瀉(鐸) 取之下俞(侯)(經脈別論)
- ⑬ 凡治病必先去其血 乃去其所苦(魚) 伺之所欲(屋) 然後瀉有餘(魚) 補不足(屋)(血氣形志)
- ⑭ 從而察之 三部九候(侯) 卒然逢之 早退其路(鐸)(離合眞邪論)
- ⑮ 邪之所湊(屋) 其氣必虛(魚)(評熱病論)
- ⑯ 何謂有餘(魚) 何謂不足(屋)(調經論)
- ⑰ 起所有餘(魚) 知所不足(屋)(方盛衰論)
- ⑱ 其化柔潤重澤(鐸) 其變震驚飄驟(侯)(六元正紀大論)
- ⑲ 風濕相薄(鐸) 雨乃後(侯)(六元正紀大論)
- ⑳ 急則氣味厚(侯) 緩則氣味薄(鐸)(至眞要大論)
- ㉑ 其音羽(魚) 其物濡(侯) 其數六(屋)(五常政大論)

상술한 21예의 押韻에서 入聲인 屋鐸이 제한을 받지 않고 魚侯와 함께 平入의 對를 이루는 관계를 구성함을 증명하는데, 이는 과거에는 魚屋 侯鐸 屋鐸 등이 相押하지 않다가, 《內經》에 이르러 相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당연히 《內經》에서 屋韻이 鐸韻에 병합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 屋韻과 鐸韻은 漢代에 또한 2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屋部는 侯部의 入聲이 되는데 도리어 魚部와 相押할 수 있고, 鐸部는 魚部의 入聲이 되는데 도리어 侯部와 相押할 수 있는 것은 侯部 魚部가 이미 하나의 韻部인 魚部로 합쳐졌다는 旁證을 제공한다.

段玉裁의 《六書音均表》의 第四部와 第五部는 비교적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 第四部の 入聲과 第五部の 入聲도 비교적 엄격한 구별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先秦時代의 音韻을 설명하는 것으로,

漢代에 이르러서는 第四部와 第五部の 入聲字와 연관이 있는 것은 合韻 通押할 수 있었다. 이는 《六書音均表》에서 第四表에도 대략 설명이 있다. 이 외에도 ‘寫67)의 古音은 鐸部에 있어서 “寫”의 音을 따른 形聲字 ‘寫’는 도리어 古音 魚部에 있으니 古韻을 분석할 때에 마땅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漢代의 詩文에서는 魚侯가 이미 하나의 韻部로 합쳐졌다. 羅常培 周祖謨의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에서 대량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魚侯가 合用하는 상황을 증명하였다. 이 책에서 “魚侯 2部の 合用은 西漢時代에 보편적인 현상이니 이 점이 周秦의 音과 다른 점이다. 作家 중에 단지 한두 편의 文章을 계산하지 않은 것 외에 象賢 賈誼 書孟 嚴忌 枚乘 孔臧 淮南 王劉安 司馬相如 中山王劉勝 東方朔 王褒 嚴遵 揚雄 崔篆의 작품은 魚侯 2部가 함께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兩漢韻部分論》-章 21項에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그 책 중에 《兩漢韻部之間通押的關係》-章에서 屋鐸과 魚侯가 相押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詩經》의 音에서 魚侯가 나뉘어 쓰인 것은 西漢時代에 이르러 魚侯 合用이 극히 보편적이므로 魚侯를 一部로 합하였다. 그러나 入聲의 鐸屋 2部를 결코 서로 혼동하지 않아서 이미 2部로 나누었다. 魚는 본래 鐸과 相承하고, 侯는 본래 屋과 相承하여 지금은 魚侯를 一部로 합쳤는데, 이와 같은 것은 陰聲 入聲이 相承하는 관계에서 현격히 매우 整齊되지 않았다. 魚侯와 入聲인 屋鐸의 押韻의 상황에서 본다면 또한 魚侯의 확실한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司馬相如 《子虛賦》 墨坳(墨 鐸部字)

王褒 《四子講得論》 射鐵處驚欲拊兔仆寇(鐵欲 屋部字)

揚雄 《羽獵賦》 與郤觸覆遽注怖脰獲聚(觸 屋部字 獲獲 鐸部字)

王褒 《僮約》 穫芋蕪(穫 鐸部字)

67) 寫: 신 석, 클 석, 빛날 석, 염발 석

揚雄 《解難》 鼓斲后暗(斲 屋部字)

이表中에서 魚部の 去聲字도 屋部字로 相押할 수 있고 侯部の 去聲字도 鐸部字와 相押할 수 있으니 魚部和 侯部는 一部로 合할 수 있음을 밝혔다.

《內經》에 있는 魚屋 相押 魚鐸 相押의 상황은 羅常培 周祖謨가 연구한 결론과 서로 들어맞는다.

(4) 眞과 文

眞文元은 원래 《詩經》의 음에서 세 韻部로 나뉜다. 이 세 韻部의 구분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은 발전과정을 거쳤다. 顧炎武의 《古音表》에 眞文元을 하나의 韻部로 만들었는데, 그는 이 韻部에는 《廣韻》의 眞 詢 臻 文 殷 元 魂 痕 寒 桓 刪 山 先 仙(上, 去를 포함)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당연히 顧炎武의 분석은 정밀하지 않아 先秦의 古音과 합하지 않는다. 뒤에 江永의 《古音標準》에 '眞'부터 '仙'까지의 14개 韻部를 두 韻部로 나누어서 眞部和 元部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江永의 眞部에는 《廣韻》의 眞 詢 臻 文 殷 元 魂 痕 및 先韻의 일부, 즉 先天天堅賢田闌年顛巔淵玄 등을 포함하고, 江永의 元部는 《廣韻》의 元寒桓刪 山仙 및 先韻의 일부, 즉 肩前爻箋錢燕蓮妍連研駢 沿邊縣 등을 포함한다. 江永의 구분은 顧炎武에 비하여 정밀하지만 先秦의 五音에 여전히 합하지 않는다. 段玉裁의 《六書音均表》에는 江永의 元部를 계승하여 江永의 眞部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眞部라 칭하였는데 《廣韻》의 眞 臻先을 포함하고, 또 하나는 文部라 칭하였는데 《廣韻》의 詢 文 欣 魂 痕을 포함하였다. 段玉裁가 眞文을 두 部로 나눈 것은 독창적인 견해로서, 江永이 나눈 것에 비해 정밀하여 후세의 音韻學者들이 모두 段玉裁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인정한다.

詩經의 음에서 眞文의 구별은 비교적 엄격하여, 眞部는 耕部和 가깝고 文部는 元部和 가깝다. 段玉裁는 《六書音均表》에서 “第十一部(耕部)與第十二部(眞部)合用最近”이라 하고, “第十三部(文部)第十四部(元部)合用最近”이라 하였다. 江有誥의 《音學十書》卷首에 <復玉石臞先生書>에 또한 “眞與耕通用爲多 文與元合用較廣 此眞文之界限也”라 하였다.

周秦時代에 眞文元 세 部가 나뉘어 쓰였다는 것

은 이미 定論화 되어있다. 段玉裁는 이 세 韻部가 “三百篇及群經 屈賦分用盡然”이라 하였다. 그러나 漢代에 이르러서는 이 세 部의 聲音이 서로 접근하는 추세였다. 語音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변화의 상황이 어떠한가는 音韻學者들이 연구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段玉裁는 이렇게 漢代에 眞文元 세 部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段玉裁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眞文元) 三百篇及群經 屈賦分用盡然 漢以後用韻過寬 三部合用 鄭庠乃以眞文元寒刪先爲一部 顧氏不能深考 亦合眞以下十四韻爲一部 僅可以論漢魏間之古韻 而不可以論三百篇之韻也(《六書音均表》第一表)

江永이 眞文을 나누지 않고 眞韻이라 칭하였는데 그는 漢代에 眞元 두 部가 서로 혼동되어 나뉘지 않았다고 인식하여 “漢魏以後 樂府詩歌 兩部紛然雜用者 甚多 自楚辭濫觴之源既流後 則茫無崖畔矣 由漢魏以來 音韻已雜 元魂痕混用者多”(이상의 引用文은 《古韻標準》平聲第四部 總論 부분에 있다.)라 하였다.

근대 漢代 音韻의 특징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羅常培 周祖謨인데 그들의 著書인 《漢魏秦南北朝韻部演變研究》는 漢魏의 音韻을 연구한 성과이다. 羅常培 周祖謨는 漢代에 眞文이 一部로 합쳐졌는데 그 특징이 文部字가 眞部字로 합쳐져서 眞部로 칭해졌으나 眞部는 元部와는 결코 합쳐지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은 江永의 결론과 자연스럽게 相合한다. 그들은 “兩漢時代에 이르러 이 두 部가 변하여 완전히 합용되었다. 이는 陰聲(韻)인 脂微가 한 部로 합쳐진 것과 상응한다. 이 한 部가 兩漢時代에 있어서 元部和 韻을 통하는 예는 매우 많으므로 段玉裁는 漢以後에 韻을 사용함이 지나치게 너그워져서 眞文元 세 部가 合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설은 매우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살펴보자면 漢人이 韻을 사용함에 眞文을 한 部로 합쳤으나 眞文은 元和 결코 완전히 한 部로 혼용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였다.(《漢魏秦南北朝韻部演變研究·兩漢韻部分論》1章 36項)

이상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면, 漢代에 眞文元 세 部의 상황은 乾嘉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江永 段玉裁는 세 部가 합용되어 境界가 전혀 없었다고 인식하였다. 또 하나는 羅常培 周祖謨는 眞文은 眞部에 합쳐졌고 眞部가 비록 元部와 많이 合韻을 이루지만 眞은 元과 여전히 조금 구별되므로 元部는 마땅히 독립되어 하나의 韻部를 이루어야한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제 《靈樞》 《素問》의 眞文元의 韻을 사용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ㄱ) 眞部字와 眞部字의 相押

- ① 上以治民(眞), 下以治身(眞), 使百姓無病, 上和親(眞)(師傳)
 - ② 何者爲神(眞) 岐伯曰,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眞)(天年)
 - ③ 其形不小不大, 各自稱其身(眞), 命曰衆人(眞)(衛氣失常)
 - ④ 夫子乃言上合之於天(眞), 下合之於地, 中合之於人(眞)(玉版)
 - ⑤ 且夫人(眞)者, 天地之鎮(眞)也(玉版)
 - ⑥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眞) 不知持滿 不時御神(眞)(上古天真論)
 - ⑦ 其次有賢人(眞)者 法則天地 象似日月 辨列星辰(眞)(上古天真論)
 - ⑧ 夫人生於地 懸命於天(眞) 天地合氣 命之曰人(眞)(寶命全形論)
 - ⑨ 歲位爲行令(眞) 太一天符爲貴人(眞)(六微旨大論)
 - ⑩ 以辛潤(眞)之 以苦堅(眞)之(至眞要大論)
 - ⑪ 太陽之復 治以鹹熱 佐以甘辛(眞) 以苦堅(眞)之(至眞要大論)
 - ⑫ 諸寒收引(眞) 皆屬於腎(眞)(至眞要大論)
 - ⑬ 去故就新(眞) 乃得眞人(眞)(移精變氣論)
- 《內經》에서 眞部字끼리 押韻을 이루는 자는 다음과 같다.

民身親神人天鎮眞辰令潤堅腎辛引新

(ㄴ) 文部字와 文部字의 相押

- ① 往者爲逆, 來者爲順(文), 明之逆順, 正行無間(問)(九鍼十二原)
 - ② 察後與先(文), 若亡若存(文)⁶⁸⁾(九鍼十二原)
 - ③ 肝悲哀動中則傷魂(文),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當人陰縮而學筋(文)(本神)
 - ④ 足太陽之本(文), 在根以上五寸中, 標在兩絡命門(文)(衛氣)
 - ⑤ 夫子之言針甚駿(文), 以配天地, 上數天文(文)(玉版)
 - ⑥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文)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文) 故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文)(四氣調神大論)
 - ⑦ 知標與本(問) 用之不殆 明知逆順(文) 正行無間(文)(至眞要大論)
 - ⑧ 言標與本(文) 易而無損(文)(至眞要大論)
 - ⑨ 收氣峻(問) 生氣下 草木斂 蒼乾雕隕(文)(氣交變大論)
- 《內經》에서 文部字끼리 서로 押韻을 이루는 자는 다음과 같다.

順問先存魂筋本門駿峻文根損隕

(ㄷ) 眞文의 合用

- ① 謹守形, 上守神(眞), 神乎神, 客在門(文)(九鍼十二原)
- ② 效之信(眞), 若風之吹雲(文)(九鍼十二原)
- ③ 正邪之中人也微, 先見於色, 不知於身(眞), 若有若無, 若亡若存(文)(邪氣藏府病形)
- ④ 夫王公大人(眞), 血食之君(文)(根結)
- ⑤ 兩精相搏, 謂之神(眞), 隨神往來者, 謂之魂(文)(本神)
- ⑥ 肩背頸項痛時眩(眞). 取之湧泉崑崙(文)(五邪)
- ⑦ 善乎哉問(文) 請論以比匠人(眞)(五變)
- ⑧ 志意者, 所以於精神(眞), 收魂魄, 適寒溫(文)(本藏)
- ⑨ 聽而不聞(文), 故似鬼神(眞)(賊風)
- ⑩ 余聞(文)之, 則爲不仁(眞), 然願聞其道, 弗行於人(眞)(玉版)

68) 若亡若存: 原文에는 “若存若亡”으로 되어 있으나 《靈樞》 語例 및 音韻에 의하여 고쳤다.

- ① 正邪之中人也微，先見於色，不知於其身(眞)，若有若無，若亡若存(文)(官能)
- ② 蓋其外門(文)，眞其乃存(文)，用針之要，無忘其神(眞)(官能)
- ③ 凡刺寒邪 日以溫(文)，徐往徐來 致其神(眞)，門戶已閉 氣不分(文)，虛實得調 其氣存(文)(刺節眞邪)
- ④ 逆其根(文) 則伐其本(文) 壞其眞(眞)矣(四氣調神大論)
- ⑤ 陽氣者 精則養神(眞) 柔則養筋(文)(生氣通天論)
- ⑥ 清陽爲天(眞) 濁陰爲地 地氣上爲雲(文) 天氣下爲雨(陰陽應象大論)
- ⑦ 病生於筋(文) 治之以慰引(眞)(血氣形志)
- ⑧ 凡刺之眞(眞) 必先治神(眞) 五臟已定 九候已備 後乃針存(文) 衆脈不見 衆凶弗聞(文) 外內相得 無以形先(眞) 可玩往來 乃施於人(眞)(寶命全形論)
- ⑨ 外引其門(文) 以閉其神(眞)(離合眞邪論)
- ⑩ 天之道也 如迎浮雲(文) 若視深淵(眞)(六微旨大論)
- ⑪ 余聞(文)之 善言天(眞)者 必應於人(眞)(氣交變大論)
- ⑫ 悉乎哉問(文)也 與道合同 惟眞人(人)也(六微旨大論)
- ⑬ 濕以潤(文)之 寒以堅(眞)之 火以溫(文)之(五運行大論)
- (ㄷ) 結論: 《內經》에서 眞文은 한 部로 합쳐졌다.
- 上述한 자료를 통해서 考察해 보면 眞部字끼리 押韻을 이루는 예가 13가지, 文部字끼리 押韻을 이루는 예가 9가지로 합하면 22가지 예이지만, 眞文이 合用된 것은 23가지 예에 이르므로 眞文 二部에 비해서도 많다. 漢代 詩文에서 韻을 사용하는 상황이 眞部字와 文部字가 讀音上에서 명확히 차이가 있다면 絶대로 眞文이 대량으로 合用되는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이 몇 가지 예에서 《內經》에서 眞文을 韻으로 쓸 때 한 部로 합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江永의 《古韻標準》은 眞文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 음이 비록 周秦과 합하지 않더라도 漢魏에 합한

다. 羅常培 周祖謨가 漢代 詩文을 고찰한 결과는 眞文이 한 韻部로 합해졌다는 것인데, 《內經》의 音韻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內經》의 成書時代가 先秦이 아니라 兩漢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先秦時代에 眞部는 耕部와 서로 가까워서 耕部와 合韻을 이루고, 眞部는 元部와 가깝지 않으므로 合韻을 이루지 못하여 相押할 수 없었다. 漢代에 이르러 文部는 元部와 대량으로 合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眞部도 元部와 合韻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先秦時代에는 매우 적게 보인다. 아래에 《內經》에 있는 眞元 合韻의 예를 들었다.

- ① 持重遠行 汗出於腎(眞) 疾走恐懼 汗出於肝(元)(經脈別論)
- ② 腎痛者 令人洒洒然 腰脊痛婉轉(元) 大便難(元) 目眴眴(眞)然(刺瘡論)
- ③ 有所遠行勞倦(元) 逢大熱而渴 渴則陽氣內伐 內伐則熱合於腎(眞) 腎者水臟也 今水不勝火 則骨枯而髓虛 故足不任身(眞)(痿論)
- ④ 太虛廖廓 肇基化元(元) 萬物資始 五運終天(眞) 布氣眞靈 總統坤元(元) 九星懸朗 七曜周旋(元)(天元紀大論)
- ⑤ 燥者潤(眞)之 急者緩(元)之 堅者熨(元)之 脆者堅(眞)之(至眞要大論)
- ⑥ 厥陰司天(眞) 客勝則耳鳴掉眩(眞) 甚則咳 主勝則胸脇痛 舌難以言(元)(至眞要大論)
- ⑦ 諸風掉眩(眞) 皆屬於肝(元)(至眞要大論)
- ⑧ 歲宜以鹹以苦以辛(眞) 汗之清之散(元)之 安其運氣 無使受邪 折其鬱氣 資其化元(元)(六元正紀大論)
- ⑨ 病在中而不實不堅(眞) 且聚且散(元)(五常政大論)
- ⑩ 逆則其病近(眞) 其害速 順則其病遠(元) 其害微(六微旨大論)
- ⑪ 診法常以平旦(元) 陰氣未動 陽氣未散(元) 飲食未進(眞) 經脈未盛 絡脈調勻(眞) 氣血未亂(元)(脈要精微論)
- 眞文元 세 部가 合韻하는 현상은 先秦時代에는

없었는데 <內經>에는 이미 적지 않게 보인다.

① 人有虛實 五虛勿近 五實勿遠 至氣當發 間不容瞬 手動若務 針耀而勻 靜意視義 觀適之變(寶命全形論)

② 神乎神(眞) 耳不聞(文) 日明 心開而志先(眞) 愆然獨悟 口弗能言(元) 俱視獨見 適若昏(文) 昭然獨明 若風吹云(文) 故曰神(眞) 三部九候爲之原(元) 九針之論 不必存(文)也(八正神明論)

③ 胞絡者 系於腎(眞) 少陰之脈 貫腎系舌本(文) 故不能言(元)(奇病論)

④ 其絡循陰器合纂間(元) 繞纂後 別繞腎(文) 至少陰與巨陽中絡者合 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眞)(骨空論)

⑤ 太虛深玄(眞) 氣猶麻散(元) 微見而隱(文)(六元正紀大論)

眞文元 合韻은 분명히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眞文元 세 部가 비록 合韻하는 증거가 있으나 이런 예는 <內經>에 그 수가 또한 많지 않고 주로 특히 <素問>에 많으므로 따라서 <內經>에서 眞文元 세 部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內經>에서 비교적 분명히 眞文이 이미 한 部로 합쳐졌으나 元部는 또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眞元의 境界는 押韻의 수로 분석해 보면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 眞耕의 合韻은 적지 않은 예가 있으나 元部는 매우 적게 단독으로 耕部와 相押한다. 眞耕이 相押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骨氣以精(耕) 謹道如法 長有天命(眞)(生氣通天論)

② 以欲竭其精(耕) 以耗散其眞(眞)(上古天真論)

③ 無致邪 無失正(耕) 絕人長命(眞)(五常政大論)

④ 魂魄不散, 傳意一神(眞), 精氣之分, 母聞人聲(耕)(終始)

둘째 眞部字는 때로 侵部字와 相押하지만, 元部字는 결코 侵部字와 相押하는 것이 없다. 眞侵이 相押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故爲之治針(侵), 必長其身(眞)(九鍼論)

② 其生五 其氣三(侵) 數犯此者 則邪氣傷人(眞)

(生氣通天論)

③ 風氣通於肝 雷氣通於心(侵) 穀氣通於脾 雨氣通於腎(眞)(陰陽應象大論)

④ 人有重身(眞) 九月而瘕(侵)(奇病論)

(대) 脂와 微

詩經 楚辭와 先秦 諸子의 書籍에서 脂部와 微部는 나뉘어 쓰였다. 비록 <詩經·汝墳>에서 “遵彼汝墳 伐其條枚(微) 未見君子 惄如調飢(脂)”와 “魴魚鱗尾(微) 王室如燬 雖則如燬 父母孔迺(脂)”와 <北風>에 “北風其喑(脂) 雨雪其霏(微) 惠而好我 携手同歸(微)”처럼 脂微 두 部가 合韻을 이룰 수 있으나 脂微가 合韻을 이루는 수가 많지 않다.

脂와 微의 구별은 간단히 말하면 <廣韻>에서 ‘脂’ ‘皆’의 開口와 齊齒를 하나로 속하게 하여 脂部라 칭하였고, <廣韻>에 ‘脂’ ‘皆’의 合口 및 <廣韻>의 微灰咍 세 韻의 일부를 하나로 속하게 하여 微部라 칭하였다. 王力的 <詩經韻讀>에서 脂韻의 聲音을 [ei]라고 하였고, 微韻의 聲音을 [ai]라고 하였다.

形聲字로 따져 보면 아래의 모든 字 및 그 字를 聲符로 삼는 字는 모두 脂部에 속한다.

二 氏 匕 尸 夷 矢 弟 示 几 米 齊 處 美 死 履 皆 眉 癸 伊 師 豈 耆 西 尼 稽 次 自

形聲字로 따져 보면 아래의 모든 字 및 그 字를 聲符로 삼는 字는 모두 微部에 속한다.

追 堆 歸 錐 唯 崔 雷 累 貴 虫(韋) 回 鬼 畏 書 尾 罪 微 非 飛 希 衣 哀 水 毀 綏 枚 威 退 幾 衰

이제 <靈樞> <素問>에 있는 脂微 두 部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ㄱ) 微部字와 微部字의 相押

매우 이상한 것은 <靈樞>와 <素問>에 脂微 두 部가 脚韻字가 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脂部字가 脂部字와 서로 押韻을 이루는 예는 더욱 적다. 微部字끼리 押韻을 이루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空中之機(微), 清靜而微(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微)(九鍼十二原)

② 陰氣盛而陽氣衰(微), 故莖葉枯槁, 濕雨下歸

(微)(根結)

③ 神轉不回(微) 回則不轉 乃失其機(微) 至數之要 迫近以微(微) 著之玉版 命曰合玉機(微)(玉版要論)

④ 從見其飛(微) 不知其誰 伏如橫弩 起如發機(微)(寶命全形論)

⑤ 知其可取如發機(微) 不知其取如扣椎(微)(寶命全形論)

⑥ 至數之機(微) 迫近以微(微) 其來可見 其往可追(微)(天元紀大論)

(ㄱ) 脂微 合韻은 단지 1예에 불과하다.

刺之微(微) 在速遲(脂), 蠶守關, 上守機(微)(九鍼十二原)

(ㄷ) 《內經》에 있는 脂微의 집근

脂部字끼리 또는 微部字끼리 押韻을 이루는 예가 비록 많지 않으나 이 두 部가 다시 入聲인 月部와 相押하므로, 脂 微의 讀音이 마땅히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逆而奪(月)之, 惡得無虛, 追而濟(脂)之, 惡得無實(九鍼十二原)

② 無邪僻之病, 百年不衰(微), 雖犯風雨卒寒大暑, 猶有非能害(月)也(本藏)

③ 余聞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月) 而動作不衰(微)(上古天真論)

(ㄹ) 質과 物

先秦시대에 質部는 物部와 구별이 있었으며 구별이 비교적 엄격했다. 周代 후반의 諸子書에서 質物 두 部의 字가 비록 우연히 相押한 것이 있더라도 많지 않다가 漢代에 이르러 物質 두 部가 이미 매우 가까워졌다.

質部는 段玉裁의 《六書音均表》에서 第十二部(眞部)에 귀속되어 독립되지 않았다. 王念孫은 先秦의 韻이 있는 글을 근거로 고찰하여 質部는 이미 脂部의 入聲이 아니며 眞部의 入聲도 아니라 독립된 一部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質部字는 《廣韻》에서 至 霽 두 韻 및 入聲인 質 櫛 黠 屑 薛 다섯 韻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는 《與李方伯書》에서 “案去聲之至霽二部 入聲之質 櫛 黠 屑 薛五部中 凡從至 從寔 從吉 從七

從日 從疾 從悉 從栗 從黍 從畢 從乙 從失 從八 從必 從卵 從節 從血 從徹 從說之字 及閉實逸一抑別等字 皆以去入同用 而不與平上同用 因非脂部之入聲 亦非眞部之入聲 《六書音均表》以爲眞部之入聲 非也”라 하였다.

王念孫은 이 部의 원칙을 江有誥에게 알렸으나, 江有誥는 《復玉石屢先生書》에서 王念孫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王念孫의 믿음은 《音學十書》卷首에 근거가 있다. 후세의 音韻學者들도 모두 王念孫의 의견에 동의하여 質部는 독립해야만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物部가 포함하는 字는 形聲字의 聲部로 보면, 物聲 卒聲 沒聲 字聲 聿聲 亦聲 出聲 弗聲 鬱聲 氣聲 既聲 愛聲 退聲 內聲 對聲 末聲 胃聲 隊聲 遂聲 位聲 類聲 尉聲을 聲部로 삼는 字는 모두 物部에 속한다.

《內經》에 있는 質物 두 韻部를 사용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ㄷ) 質部와 質部의 相押

① 外門已閉(質), 中氣乃實(質), 必無留血(質)(九鍼十二原)

② 刺之而氣不至(質), 無問其數⁶⁹⁾, 刺之而氣至(質), 乃去之(九鍼十二原)

③ 今夫五藏之有疾(質)也, 譬猶刺也, 猶汚也, 猶結(質)也, 猶閉(質)也(九鍼十二原)

④ 刺此者, 必中氣穴(質), 無中肉節(質)(邪氣藏府病形)

⑤ 凡此諸脹者, 其道在 一(質), 明知逆順, 鍼數不失, 寫虛補實(質), 神去其室(質)(脹論)

⑥ 不中氣穴(質), 則氣內閉(質)(脹論)

⑦ 此乃所謂守一勿失(質), 萬物畢(質)者也(病傳)

⑧ 衛氣和則分肉解利(質), 皮膚調柔, 腠理緻密(質)矣(本藏)

⑨ 知解結(質), 知補虛寫實(質)(官能)

⑩ 皮膚緻(質), 腠理閉(質)(刺節眞邪)

⑪ 經氣已至(質) 慎守勿失(質) 深淺在志 遠近若 一(質)(寶命全形論)

69) 數: 이 句의 ‘數’는 “乃去之”의 ‘去’와 相押하여 魚侯合用이 된다.

- ⑫ 外門不閉(質) 以出其疾(質)(調經論)
- ⑬ 入孫絡受血(質) 皮膚充實(質)(四時刺逆從論)
- ⑭ 氣門乃閉(質) 剛木早凋 民避寒邪 君子周密(質)(六元正紀大論)
- ⑮ 霜復降 風乃至(質) 陽氣鬱 民反周密(質)(六元正紀大論)

《內經》에 있는 質部字끼리의 押韻은 다음과 같다.

實血至疾結閉穴節一失室畢穴利密緻

- (ㄱ) 物部字와 物部字의 相押
- ① 必持內(物)之, 放而出(物)之(九鍼十二原)
- ② 五藏之氣(物), 已絕於內(物), 而用鍼者, 反實其外(物)(九鍼十二原)
- ③ 其濁氣出於胃(物), 走脣舌而爲味(物)(邪氣藏府病形)
- ④ 獨得行於經隧(物), 命曰營氣(物). 黃帝曰 夫血之與氣(物), 異名同類(物) 何謂(物)也(營衛生會)
- ⑤ 故血之與氣(物), 異名同類(物)焉(營衛生會)
- ⑥ 與勇上同類(物), 不知避之, 名曰酒悖(物)也(論勇)
- ⑦ 用鍼之類(物), 在於調氣(物)(刺節真邪)
- ⑧ 形不足者 溫之以氣(物) 精不足者 補之以味(物)(陰陽應象大論)
- ⑨ 氣有餘則瀉其經隧(物) 無傷其經 無出其血 無泄其氣(物) 不足則補其經隧(物) 無出其氣(物)(調經論)
- ⑩ 必切而出(物) 大氣乃屈(物)(調經論)
- ⑪ 君火以明 相火以位(物) 五六相合 而七百二十氣爲一紀(物)(天元紀大論)

《內經》에 있는 物部字 相押의 字는 다음과 같다.

胃味氣位出屈隧類悖謂內出

- (ㄷ) 質物의 合用
- 質部끼리 또는 物部끼리 相押하는 현상을 살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內經》에 있는 質微가 合用된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예는 《內經》에서 質部 微部가 이미 상당히 접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는 漢代에 韻을 사용했던 특징이다.

- ① 疾雖久, 猶可畢(質)也. 言不可治者, 未得其術(物)也(九鍼十二原)
- ② 鍼以得氣(物), 密意守氣勿失(質)也(小鍼解)
- ③ 徐而疾則實(質)者, 言徐內而疾出(物)也(小鍼解)
- ④ 飲食不節(質), 而病生于腸胃(物)(小鍼解)
- ⑤ 刺大者, 微寫其氣(質), 無出其血(物)(邪氣藏府病形)
- ⑥ 血(質)者, 神氣(物)也(營衛生會)
- ⑦ 此氣慄悍滑疾(質), 見開而出(物)(營衛生會)
- ⑧ 易脫于氣(物), 易損于血(質), 刺此者, 淺而疾(質)之(逆順肥瘦)
- ⑨ 外揣言渾束爲一(質), 未知所謂(物)也(禁服)
- ⑩ 請藏之靈蘭之室(質), 不敢妄出(物)也(刺節真邪)
- ⑪ 寒則皮膚急而腠理閉(質), 暑則皮膚緩而腠理開(物)(歲露)
- ⑫ 有者爲實(質) 無者爲虛 故氣併則無血(質) 血併則無氣(物) 今血與氣相失(質) 故爲虛焉(調經論)
- ⑬ 近氣不失(質) 遠氣乃來 是謂追(物)之(調經論)
- ⑭ 藏而勿抑(質) 是謂平氣(物)(五常政大論)

(ㄹ) 《內經》에서 質物은 합하여 一部가 되었다. 質物 두 部는 月部와 合韻을 이루는데 《內經》에서 韻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月部는 독립된 一部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 《靈樞》 《素問》에는 적지 않은 質月合韻 物月合韻의 예가 있다. 위에서 이미 많은 예로 質과 物의 두 部가 《內經》에서 이미 合用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이제 또한 質과 物이 동시에 모두 月部와 相押하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質物은 이미 모두 같이 月部와 合韻을 이루는데 이는 質物 두 韻部의 聲音이 매우 비슷하여 漢代에 이미 하나의 韻部로 합쳐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月部의 성립은 王念孫의 공로이다. 그는 《與李方伯書》에서 《廣韻》의 祭泰夬廢 네 韻이 “考三百篇及群經楚辭 此四部之字 皆與入聲之月 曷 末 黠 鐸 薛 同用”하고, 平聲 上聲과는 相押하지 않

으므로 月部는 마땅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音韻學者들은 壬念孫이 月部를 독립한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內經》의 音韻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內經》에 있는 月部도 하나의 독립된 韻部이며 月部字끼리 相押한 예가 매우 많은 것을 밝혔다. 당연히 여기에서 月部가 독립해서 존재했는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 논증하여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만 質과 物이 《內經》에서 이미 일치하거나 혹은 하나의 韻部로 합쳐졌음만을 증명하도록 한다.

- ① 凡用鍼者, 虛則實(質)之, 滿則泄(月)之(九鍼十二原)
 - ② 能知終始, 一言而畢(質), 不知終始, 鍼道成絕(月)(根結)
 - ③ 髀不可以曲, 膈如結(質), 踠如裂(月), 是爲蹀躞(月)(經脈)
 - ④ 皮毛焦則津液去皮節(質), 津液去皮節(質)者, 則爪枯毛折(月)(經脈)
 - ⑤ 請藏之靈蘭之室(質), 弗敢使泄(月)也(外揣)
 - ⑥ 與道相失(質) 則未央絕滅(月)(四氣調神大論)
 - ⑦ 萬物不失(質) 生氣不竭(月)(四氣調神大論)
- 다음은 物月이 合韻한 예이다.
- ① 欲以微鍼通其經脈, 調其血氣(物), 營其逆順出入之會(月). 令可傳於後世(月), 必明爲之法, 令終而不滅(月), 久而不絕(月)(九鍼十二原)
 - ② 鋒如黍粟之銳(月), 主按脈勿陷, 以致其氣(物)(九鍼十二原)
 - ③ 異名同類(物), 上下相會(月)(邪氣藏府病形)
 - ④ 老壯不同氣(物), 陰陽異位(物), 願聞其會(月)(營衛生會)
 - ⑤ 營在脈中, 衛在脈外(物),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月)(營衛生會)
 - ⑥ 營衛(月)者, 精氣(物)也(營衛生會)
 - ⑦ 穀入于胃(物), 胃氣上注于肺(肺). 今有故寒氣與新谷氣(物), 俱還入于胃(物)(口問)
 - ⑧ 夫九鍼者, 小之則無內(物), 大之則無外, 深不可爲下(月), 高不可爲蓋(月)(外揣)
 - ⑨ 故遠者, 司外揣內(物), 近者, 司內揣外(月), 是謂陰陽之極, 天地之蓋(月)(外揣)
 - ⑩ 審於調氣(物), 明於經隧(物), 左右肢絡, 盡知

- 其會(月)(官能)
- ① 凡刺小邪曰以大(月), 補其不足乃無害(月), 視其所在迎之界(月), 遠近盡至其不得外(月), 侵而行之, 乃自費(物)(刺節眞邪)
 - ② 氣積於胃(物), 以通營衛(月)(刺節眞邪)
 - ③ 勞則喘息汗出 外內皆越(擧痛論)
 - ④ 刺此者取之經隧(物) 取血於營 取氣於衛(月)(調經論)
 - ⑤ 二陰至肺(月) 其氣歸膀胱 外連脾胃(物)(陰陽類論)
- 이상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면 《內經》에 있는 質部和 物部の 한계는 이미 분명하지 않았다. 《內經》에서 物質 두 部가 대량으로 合用된 것 과 이 두 部가 月部和 合韻된 사실은 그것들이 漢代에 이미 하나의 韻部로 합쳐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㉞ 歌魚合韻
- 《內經》에서 이처럼 歌魚가 合韻한 예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西漢時代에 魚部の 馬韻字 즉 '家' '華'는 歌部로 轉入되는 추세였다가, 東漢에 이르러서는 '家' '華'가 완전히 歌部에 轉入되었다. 예를 들어 班固의 《北征賦》에 '婆那加他邪圖峨家波'로 押韻하였고, 張衡의 《西京賦》는 '家過加'를 上押하였는데, '家' '華'가 이미 점점 歌部로 轉入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漢에 이르러 麻韻의 字가 歌部와 相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나 魚部の 模姥暮 魚語御 虞麴遇의 字는 歌部와 相押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內經》에 이러한 예가 있다. 이러한 예는 당연히 語音史를 연구하는 사람의 주의를 일으킨다. 아래에 魚歌合韻의 예를 열거하였다.
- ① 皮肉筋脈, 各有所處(魚), 病各有所宜(歌), 各不同形, 各以任其所宜(歌)(九鍼十二原)
 - ② 此四時之序(魚), 氣之所處(魚), 病之所舍(魚), 藏之所宜(歌)(本輸)
 - ③ 陰陽相移(歌), 何寫何補(魚)(根結)
 - ④ 陰盛而陽虛(魚), 先補其陽, 後寫其陰而和(歌)之(根結)
 - ⑤ 余聞刺有五過(歌). 歧伯曰 補寫無過其度(魚)(五禁)

⑥ 凡陰陽之要 陽密乃固(魚) 兩者不和(歌) 若春無秋 若冬無夏(魚) 因而和(歌)之 是謂聖度(魚)(生氣通天論)

⑦ 不適貧富貴賤之居(魚) 坐之薄厚(魚) 形之寒溫 不適飲食之宜(歌) 不別人之勇怯(魚)(徵四失論)

⑧ 陽復化(歌) 草乃長乃化乃成 民乃舒(魚)(六元正紀大論)

⑨ 故治病者 必明六化分治 五味五色所生 五藏所宜(歌) 乃可以言盈虛病生之緒(魚)也(至真要大論)

⑩ 高者抑之 下者舉(魚)之 有餘折之 不足補(魚)之 佐以所利 和以所宜(歌)(至真要大論)

⑪ 病所遠而中道氣味之者 貪而過(歌)之 無越其制度(魚)也(至真要大論)

⑫ 生之有度(魚) 四時爲宜(歌)(脈要精微論)

先秦時代에 歌魚 두 部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는데 바로 段玉裁가 말한 “古韻第十七部(歌) 古獨用無異辭 漢以後多以魚虞之字韻入于歌戈 鄭氏以魚虞歌麻合謂一部 乃漢魏之韻 非三百篇之韻也”라 하였다. 이상의 10가지 예에서도 漢代의 韻이 느슨해져서 押韻이 엄격하지 않은 특징을 알 수 있다.

(㉞) 明 行 風 3字의 韻部 변천

‘明’ ‘行’은 先秦 古音에서 陽部 庚部の 開口字에 속하고, 《詩經》 《楚辭》와 周秦 諸子書에서 이 두 字는 모두 陽部字와 相押하며, 東漢時代에 ‘明’ 字는 이미 庚韻에 轉入되었고 ‘行’字도 이미 庚韻에 轉入되었다. 이는 東漢音과 西漢音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두 字의 讀音과 韻部에 대한 考證은 일찍이 音韻學者的 주의를 끌었다. 顧炎武는 《唐韻正》에서 ‘明’字는 今音이 ‘武兵切’(명:mang)이고, 古音이 ‘謨郎反’(망:mang)이라고 하였다. ‘謨郎反’으로 읽으면 ‘明’은 陽部字에 속하고, ‘武兵切’로 읽으면 그것은 庚部字에 속한다. 顧炎武는 ‘明’字의 讀音과 소속된 韻部의 變遷에 대해 考證을 하였는데, 그는 《素問·四氣調神大論》 《六韜·奇兵篇》 《王褒四子講德論》 班婕妤의 《自悼賦》 班固의 《漢書敘傳》 班固의 《西都賦》 《北征頌》 《泗水亭碑銘》 傅毅의 《北海王誄》 崔駰의 《大理箴》 崔瑗의 《尚書箴》 張衡의 《東京賦》 王逸의 《九思》 王延壽의 《魯靈光殿賦》 蔡琰의 《胡笳

十八拍》 등의 문장에 있는 자료를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明’字는 모두 耕部字와 相押하였다. 그의 결론은 ‘明’字가 漢代에 있는 많은 詩文中서 陽韻에서 耕韻으로 轉入되었다는 것이다. 江永의 《古韻標準》에서 平聲第八部 ‘明’字에 대한 ‘本證’ 13가지를 열거하고, ‘旁證’ 3가지를 열거하여 ‘明’字가 先秦時代에 ‘謨郎切’로 읽혔고, 후세에 ‘武兵切’로 읽히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羅常培 周祖謨는 《漢魏秦南北朝韻部演變研究》에서 ‘明’ ‘行’에 대해서도 상세한 고증을 하였다. 그들은 “(西漢)에 庚韻字 즉 象 京 明 行 兄 등의 字가 우연히 耕部字와 押韻을 이루었다. 東漢에 이르러 이런 類의 字가 절반이상 耕部에 轉入되었다. 行字 또는 行部の 일부 또는 耕部の 일부는 일정한 소속이 없어 두 部에 모두 속해져 있다. 이런 轉變은 바로 東漢音과 西漢音이 다른 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아래에 ‘明’ ‘行’ ‘風’ 세 字의 押韻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㉟) 明

《內經》에서 ‘明’字는 두 韻部로 나뉘었는데, 일부분의 ‘明’字는 여전히 陽部에 속하여 mang으로 읽고 陽部字와 相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故聖人傳精神 服天氣而通神明(陽)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陽)(生氣通天論)

②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陽) 故天運當以日光明(陽)(生氣通天論)

③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陽)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陽)也(陰陽應象大論)

④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陽) 音聲能彰(陽)(六節藏象論)

⑤ 別而未能明(陽) 明而未能彰(陽) 足以治群僚 不足至侯王(陽) 顧得受樹天之度 四時陰陽(陽)合之⁷⁰⁾ 別星辰與日月光(陽) 以彰經術 後世益明(陽)

70) 韻에 의하면 마땅히 “合之四時陰陽”으로 해야 한다.

上通神農 著至教 疑於二皇(陽)(著至教論)

⑥ 夫三陽天爲業 上下無常(陽) 合而病至 偏害陰陽(陽)(著至教論)

⑦ 且以知天下 何以別陰陽(陽) 應四時 合之五行(陽)(著至教論)

⑧ 診病不審 是謂失常(陽) 謹守此治 與經相明(陽) 上經下經 揆度陰陽(陽) 奇恒五中 決以明堂(陽) 審於始終 可以橫行(陽)(疏五過論)

⑨ 脈動無常(陽) 散陰頗陽(陽) 脈脫不具 於無常行(陽) 診必上下 度民君卿(陽) 受師不卒 使術不明(陽) 不察逆從 是爲妄行(陽) 持雌失雄(陽) 棄陰附陽(陽) 部知并合 診故不明(陽) 傳之後世 反論自彰(陽)(方盛衰論)

⑩ 是以診有大方(陽) 坐起有常(陽) 出入有行(陽) 以轉神明(陽)(方盛衰論)

⑪ 夫精明(陽)者 所以視萬物別白黑 審短長(陽)(脈要精微論)

⑫ 是故聲合五音 色合五行(陽) 脈合陰陽(陽)(脈要精微論)

⑬ 補陰寫陽(陽), 音氣益彰(陽), 耳目聰明(陽), 反此者, 血氣不行(陽)(終始)

⑭ 五音不彰, 五色不明, 五藏波蕩(外揣)

⑮ 余願得而明(陽)之, 金匱藏(陽)之, 不敢揚(陽)之(陰陽二十五人)

⑯ 白眼赤脈法於陽(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陽)也(大惑論)

이상의 모든 예에서 매우 명확히 '明'字가 陽部字에 속하여 陽部字와 相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의 몇 가지 예는 '明'字는 ming으로 읽고, 그것이 耕韻에 이미 轉入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東漢時代의 音韻의 특징이다.

① 秋三月 此謂容平(耕) 天氣以急 地氣以明(耕) 早臥早起 與鷄俱興 使志安寧(耕) 以緩秋刑(耕) 收斂神氣 使秋氣平(耕) 無外其志 使肺氣清(耕)(四氣調神大論)

② 收氣不行(耕)⁷¹⁾ 長氣獨明(耕) 雨水霜寒 上應辰星(耕)(氣交變大論)

71) '星'이 耕部字이니, '行'은 陽部에서 耕部로 轉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天氣潔 地氣明(耕) 陽氣隨陰治化 燥行其政(耕) 物以可成(耕)(五常政大論)

④ 太陽司天 寒氣下臨 心氣上從 而火且明(耕) 丹起金乃眚(耕) 寒清時舉 勝則水冰 火氣高明(耕)(五常政大論)

⑤ 凡此陽明司天之政(耕) 氣化運行後天 天氣急 地氣明(耕) 陽專其合(耕) 炎暑大行(耕)(六元正紀大論)

⑥ 金鬱之發 天潔地明(耕) 風清氣切 大涼乃舉 草樹浮烟 燥氣以行(耕) 霧霧數起 殺氣來至 草木蒼乾 金乃有聲(耕)(六元正紀大論)

⑦ 夫日月之明, 不失其影, 水鏡之察, 不失其形, 鼓響之應, 不後其聲(外揣)

⑧ 足太陰之正, 上至脾, 合于陽明, 與別俱行(經別)

ㄴ) 行
顧炎武는 《唐韻正》에서 “行 古音杭”이라 하였고, 今音은 戶庚切(행:xing)이다. ‘杭’으로 읽으면 古韻의 陽部에 속하고 xing으로 읽으면 陽部에서 耕部로 轉入된 것이다. 東漢時代에 대체적으로 이미 이런 轉變이 완성되었다. 顧炎武가 “按行字 漢以上唯《淮南子·說林訓》免絲無根而生 蛇無足而行 魚無耳而聽 蟬無口而鳴 入侯人清青韻 後漢則曹昭《東征賦》維永初之有七兮 余隨子兮東征 時孟春之吉日兮 撰良臣而將行 其始變也”라 하였다. 江永의 《古韻標準》에 平聲第八部에서 ‘行’字의 古音은 모두 戶郎切(hang)으로 읽고, “後世始入庚韻”이라 하였다.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後世”란 漢代까지 포함되어 있다.

① 肌肉憤脹 而有瘍(陽) 衛氣有所凝而不行(陽)(風論)

② 上應天光星辰歷紀 下副四時五行(陽) 貴賤更互 冬陰夏陽(陽)(三部九候論)

③ 知標與本者 萬學萬當(陽) 不知標本 是謂妄行(陽)(標本病傳論)

④ 且以知天下 何以別陰陽(陽) 應四時 合之五行(陽)(著至教論)

⑤ 夫二火不勝三水 是以脈亂而無常(陽)也 四支解墮 此脾精之不行(陽)也 喘咳者 是水氣并陽明(陽)也 血泄者 脈急血無所行(陽)也(示從容論)

- ⑥ 暴怒傷陰 暴喜傷陽(陽) 厥氣上行(陽)(疏五過論)
- ⑦ 外爲柔弱 亂至失常(陽) 病不能移 則醫事不行(陽)(疏五過論)
- ⑧ 脈動無常(陽) 散陰頗陽(陽) 脈脫不具 於無常行(陽) 診必上下 度民君卿(陽) 受師不卒 使術不明(陽) 不察逆從 是爲妄行(陽)(方盛衰論)
- ⑨ 是以診有大方(陽) 坐起有常 出入有行(陽) 以轉神明(陽)(方盛衰論)
- ⑩ 天有四時五行(陽) 以生長收藏(陽)(陰陽應象大論)
- ⑪ 刺諸熱者, 如以手探湯. 刺寒清者, 如人不欲行(九鍼十二原)
- ⑫ 中外皆傷(陽), 故氣逆而上行(陽)(邪氣藏府病形)
- ⑬ 緩甚爲狂妄, 微緩爲伏梁(陽), 在心下上下行(陽)(邪氣藏府病形)
- ⑭ 營之生病(陽)也, 寒熱少氣, 血上下行(陽)(壽夭剛柔)
- ⑮ 補陰寫陽(陽), 音氣益彰(陽), 耳目聰明(陽), 反此者, 血氣不行(陽)(根結)
- ⑯ 余聞先師, 有所心藏(陽), 弗著于方(陽), 余願聞而藏(陽)之(師傳)
- ⑰ 清氣在陰, 濁氣在陽(陽), 營氣順脈, 衛氣逆行(陽)(五亂)
- ⑱ 此天地之陰陽(陽)也, 非四時五行之以次行(陽)也(陰陽繫日月)
- ⑲ 是故血和則經脈流行(陽), 營覆陰陽(陽), 筋骨勁強(陽)(本藏)
- ⑳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其所行, 知其度量(禁服)
- ㉑ 諸方者, 衆人之方也, 非一人之所盡行也(病傳)
- ㉒ 營衛之行(陽), 不失其常(陽), 呼吸微徐, 氣以度行(陽)(天年)
- ㉓ 何道之塞, 何氣出行(陽), 使音不彰(陽), 願聞其方(陽)(憂志無言)
- ㉔ 離而入陰, 別而入陽(陽), 此何道而從行(陽), 願盡聞其方(陽)(邪客)
- ㉕ 言陰與陽(陽), 合於五行(陽), 五藏六府, 亦有所藏(陽), 四時八風, 盡有陰陽(陽), 各得其位, 合於

- 明堂(陽)(官能)
 - ㉖ 陽氣滑盛而揚(陽), 故神動而氣先行(陽)(行鍼)
 - ㉗ 寒入於中(陽), 推而行(陽)之. 經陷下者, 火則當(陽)之(官能)
 - ㉘ 各得其能, 方乃可行(陽), 其名乃彰(陽)(官能)
 - ㉙ 腠理開, 毫毛搖, 氣往來行(陽), 則爲痒(陽)(刺節真邪)
 - ㉚ 風從東南方行(陽), 春有死亡(陽)(歲露)
 - ㉛ 已食若飲湯(陽), 衛氣留久於陰而不行(陽)(大惑論)
 - ㉜ 陰陽已張(陽), 因息乃行(陽)(癰疽)
 - ㉝ 陽絡之色變無常(陽) 隨四時而行(陽)也(《素問·經絡論》)
- 이상의 '行'字는 모두 '杭'(hang)으로 읽어야만 하고 陽部에 속한다. 先秦 兩漢時代에 '五行'의 '行'도 '杭'으로 읽었는데 이상의 모든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素問》에서 '五行'의 '行'도 '행'(xing)으로 읽는다.
- 《內經》에서도 행(xing)으로 읽는 '行'字는 적지 않은데, 《素問》의 運氣七篇에서 더욱 많다. 이는 매우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아래의 모든 예의 '行'은 이미 耕部에 轉入되어 행(xing)으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月始生(耕) 則血氣始精(耕) 衛氣始行(耕)(八正神明論)
 - ② 因不知合之四時五行(耕) 因加相勝 釋邪攻正(耕) 絕人長命(耕)(離合眞邪論)
 - ③ 腹中鳴(耕) 身重難以行(耕)(評熱病論)
 - ④ 義無邪下者 欲端以正(耕)也 必正其神者 欲瞻病人目 制其格 令氣易行(耕)也(鍼解篇)
 - ⑤ 收氣不行(耕) 長氣獨明(耕) 雨水霜寒 上應辰星(耕)(氣交變大論)
 - ⑥ 歲木不及 燥乃大行(耕) 生氣失應 草木晚榮(耕)(氣交變大論)
 - ⑦ 歲火不及 寒乃大行(耕) 長政不用(耕) 物榮而下 凝慘而甚 則陽氣不化 乃折榮美 上應辰星(耕)(氣交變大論)
 - ⑧ 歲土不及 風乃大行(耕) 化氣不令(耕) 草木茂榮(耕) 飄揚而甚 秀而不實 上應歲星(耕)(氣交變大論)

⑨ 歲金不及 炎火乃行(耕) 生氣乃用(耕) 長氣專勝 庶物以茂 燥燥以行(耕) 上應熒惑星(耕)(氣交變大論)

⑩ 歲水不及 濕乃大行(耕) 長氣反用(耕) 其化乃遠 暑雨數至 上應鎮星(耕)(氣交變大論)

⑪ 敷和之紀 木德周行(耕) 陽舒陰布 五化宣平(耕)(五常政大論)

⑫ 白起金用 草木管(耕) 喘嘔寒熱 喘嘔衄鼻窒 大暑流行(耕)(五常政大論)

⑬ 治溫以清(耕) 冷而行(耕)之(五常政大論)

⑭ 天氣急 地氣明(耕) 陽專其令(耕) 炎暑大行(耕)(六元正紀大論)

⑮ 五之氣 春令反行(耕) 草乃生榮(耕)(六元正紀大論)

⑯ 草樹浮烟 燥氣以行(耕) 霧霧數起 殺氣來至 草木蒼乾 金乃有聲(耕)(六元正紀大論)

⑰ 咳喘有聲(耕) 大雨時行(耕)(至眞要大論)

⑱ 以所利而行(耕)之 調其氣使其平(耕)也(至眞要大論)

⑲ 逸者行(耕)之 驚者平(耕)之(至眞要大論)

先秦時代に '明'字는 또한 명(ming)의 讀音이 出現할 수 없고 一률적으로 망(mang)으로 읽고, '行'字는 先秦時代に 모두 향(hang)으로 읽다가 兩漢에 이르러 또 다른 讀音인 행(xing)이 出現하는 동시에 또한 향(hang)의 讀音을 보류하였다. 東漢時代に 이르러 '明'은 완전히 耕部에 轉入되어 명(ming)으로 읽고, '行'字는 주로 행(xing)으로 읽는다. 尙술한 분석과 예에서 고찰하면 《靈樞》《素問》은 漢代의 저작임은 거의 틀림이 없으며 運氣七篇은 東漢의 저작이다.

(ㄷ) 風

成書時代를 판단하는데 '風'字를 사용하는데, 先秦時代의 詩文에서 '風'字의 收尾音이 [m]이어서 侵韻字에 속하였다. 따라서 風字는 一률적으로 侵韻字와 相押하였는데, 侵韻字의 收尾音이 모두 [m]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詩經·綠衣》에 "稀兮綌兮 淒其以風 我思古人 實獲我心"이라 하였고, 《邶風·谷風》에 "習習谷風 以陰以雨 繩勉同心"이라 하였고, 《管子·版法篇》에서 "兼愛無疑 是謂君心 必先順教 萬民嚮風 且暮利之 衆乃勝任"

이라 하였고, 《孫子·軍爭篇》에 "故其疾如風 其徐如林" 등등이 있다. 漢代에 이르러 어떤 작가는 여전히 '風'字를 侵部字와 相押하여 《詩經》《楚辭》와 先秦 諸子書의 音韻의 사용과 일치하였으나 또한 어떤 詩文에서는 '風'字를 蒸部字 東部字, 심지어 陽部字 耕部字와 相押하였으니, 語音上으로 보면 '風'字의 收尾音[m]이 이미 [ng]으로 변하여 蒸 東과 相押하고 때로는 陽耕과 相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先秦時代에는 있을 수 없고 漢代 詩文의 音韻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楊雄의 《甘泉賦》에 '風'字는 乘 澄 兢과 相押하였는데 乘 澄 兢은 蒸韻字에 속하고, 楊雄의 《尙書箴》에서 '風'이 聰恭과 相押하였는데 聰 恭은 東韻字에 속한다. 楊雄은 西漢 蜀地人으로 만약 '風'字의 收尾音이 [m]에서 [ng]으로 변한 것이 方言의 音의 表現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東漢의 작가 杜篤 馮衍 傅毅 班固 馬融의 작품은 '風'字가 또한 東冬蒸 세 部의 相押이 侵部字의 相押보다 매우 적다. 班固는 陝西 扶風按陵人이고 傅毅 馬融은 扶風茂陵人이며 馮衍 杜篤은 京兆杜陵人으로, 여기의 方言의 音은 蜀郡의 方言의 音과 같지 않다. 가령 班固의 《東都賦》의 '風'字는 雍 征 躬 陵과 押韻을 이루고 馬融의 《長笛賦》의 '風'字는 工 鍾 容 隆 降 興 重 同 終과 押韻을 이루고, 傅毅의 《寶將軍北征賦》의 '風'字는 鋒 降과 押韻을 이루며, 杜篤의 《論都賦》의 '風'字는 京 陵 隆과 押韻을 이루며, 馮衍의 《顯志賦》의 '風'字는 罔 紘 崩과 押韻을 이룬다.

그러나 漢代 작품에서 어떤 것은 여전히 '風'字가 侵部字와 押韻을 이루는데 이는 곧 '風'字가 여전히 侵韻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淮南子》가 이와 같은데 <說林訓>에 "有山無林 有谷無風 有石無金"에서 林 風 金은 모두 侵部字이다. 劉熙는 《釋明》에서 '風'字를 해석하면서 "風 充豫司橫口合唇言之 風 汜也 其氣博汜而動物也 青徐言風馱口開唇推氣言之 風 放也 氣放散也"라 하였다. 이런 자료는 매우 중요한데, '風'字가 漢代의 讀音이 두 종류로 通行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風'字를 풍(feng)으로 읽는 것은 漢代 몇몇 지방의 方言에서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후

에 몇몇 文人들이 方言의 音에 따라서 글을 씀으로써 收尾音이 [m]인 ‘風’字를 [ng]의 收尾音으로 읽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매우 영향을 미쳐서 많은 작가들도 이렇게 韻을 쓰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더욱 주요한 原因은 漢代에 ‘風’자가 확실히 侵韻에서 冬韻으로 전입된 사실이 출현하였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風’字가 [ng]가 收尾音인 字와 相押할 수가 없다.

아래에 《內經》에 있는 ‘風’字가 韻으로 들어간 상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가) 《靈樞》에 있는 ‘風’字가 韻으로 들어간 예

- ① 夫天之風者，非以私百姓(耕)也(五變)
- ② 常候闕中(冬)，薄澤爲風(五色)
- ③ 黃赤爲風，青黑爲痛(東)，白爲寒，黃而膏潤爲

膿(東)(五色)

- ④ 凡此四時之風者，其所病各不同形(耕)(論勇)
- ⑤ 萬民懈惰而皆中於虛風，故萬民多病(耕)(歲露)
- ⑥ 正月朔日，天利溫不風，糴⁷²⁾賤民不病(陽)，天寒而風，糴貴民多病(東)。此所謂候歲之風(歲露)
- ⑦ 二月丑不風，民多心腹病(陽)(歲露)
- ⑧ 知其邪正(耕)者，知論虛邪與正邪之風也(小鍼解)

⑨ 若鼻息肉不通(東)。緩甚爲多汗，微緩爲痿癱偏風(邪氣藏府病形)

⑩ 氣盛有餘，則肩背痛(東)，風寒，汗出中風(經脈)

(나) 《素問》에 있는 ‘風’字가 韻으로 들어간 예

- ① 八風發邪以爲經風，觸五臟(陽) 邪氣發病(陽)(金匱眞言論)
- ② 其民陵居而多風，水土剛強(陽)(異法方宜論)
- ③ 秋不死 持於冬(冬) 起於春 當禁風(藏氣法時論)
- ④ 腎病者 腹大脛腫(東) 喘咳身重(東) 寢汗出憎風 虛則胸中痛(東)(藏氣法時論)
- ⑤ 風之傷人也 或爲寒熱 或爲熱中(冬) 或爲寒中(冬) 或爲癘風 或爲偏枯 或爲風也 其病各異 其名不同(東)(風論)
- ⑥ 故風者 百病之長(陽)也 至其變化乃爲他病(陽)

也(風論)

⑦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陽)(風論)

⑧ 胃風之狀 頸多汗 惡風 食飲不下 膈塞不通(東)(風論)

⑨ 血氣未并(耕) 五臟安定 肌肉蠕動(東) 命曰微風(調經論)

⑩ 太陰所至爲雷霆驟注烈風 少陽所至爲飄風燔燎霜凝(六元正紀大論)

⑪ 便數憎風 厥氣上行(耕)(至眞要大論)

이상에서 서술한 예로 보면 《內經》에 있는 風字의 收尾音은 이미 [m]에서 [ng]로 변했으며 그 韻도 侵部에서 冬部로 轉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사) 小結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해서 위에서 音韻學的 각도에서 비교적 충분히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간단히 요점을 추려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兩漢의 音韻은 上古音 中古音 今音으로 크게 세 가지의 시대로 구분하면 上古音의 여전히 계통에 속하나, 漢代의 音韻은 이미 周秦의 古音과도 약간 다르다. 가령 魚侯 두 部가 先秦時代에 확연히 나뉘어 쓰였으나 《易林》 《淮南子》 등의 漢代의 작품에서 魚侯 두 部가 이미 合用되어 있다. 《內經》에서 魚侯 두 部가 合用된 것이 70에 이상인데, 이는 魚侯가 韻을 통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 두 部가 合用된 표현이 나타내는 것은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둘째 江永의 《古韻標準》에서 眞文이 두 部로 나뉘지 않아서 先秦古音의 실제상황과 부합하지 않으나, 兩漢에서 韻을 사용한 상황과는 부합한다. 《內經》에서 眞文이 合用된 수는 眞文이 나뉘어 쓰인 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셋째 《內經》에서 脂部와 微部의 押韻字는 매우 적어서, 그들의 分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넷째 質部는 眞部의 入聲이고 物部는 文部의 入聲이며 質部와 物部의 收尾音이 모두 [t]로, 그들의 讀音은 매우 비슷하다. 《內經》에서 質部끼리 또는 物部끼리 이미 각각 相押하고 또한 몇몇 質

72).적(작): 쌀 사들이다. 빠르다. 쌀 일다.

物合用的 예가 있으며, 특별히 지적할 것은 質物이 모두 月部와 合韻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漢代의 音韻이 質物이 이미 한 部로 합쳐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또한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다섯째 《內經》의 魚歌合韻은 확실히 의심이 없는 漢代 音韻의 특징이다. 《內經》에 있는 魚部字는 歌部字와 相押하는데 이미 魚部の 麻韻字에 한정되지 않고 魚語御 模姥暮의 字도 모두 歌部와 相押하였다. 이는 先秦時代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섯째 ‘明’字는 西漢에 이미 耕部字와 相押하는 상황이었으나 또한 말지는 않았다가 東漢에 이르러 이미 耕部에 轉入되었다. 《內經》에 있는 ‘明’字가 耕部와 相押하는 것은 주로 運氣七篇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運氣七篇이 東漢의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行’(hang)字는 漢代에 xing의 聲音이 나타났는데, 즉 陽部에서 耕部로 轉入되었다. 《靈樞》《素問》에 있는 많은 ‘行’字가 모두 耕部字와 相押하는 사실은 《內經》이 漢代의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風’字의 韻部가 원래 侵韻에 속하였는데, 漢代의 어떤 작품에는 이미 冬 蒸 陽 東 耕과 相押한다. 《內經》에 있는 ‘風’字는 이미 收尾音이 [ng]인데, 이는 《內經》이 漢代의 저작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音韻上으로 분석하면 《內經》은 漢代에 成書되었고, 運氣七篇은 이보다 더 늦은 대략 東漢에 이루어졌다.

(2) 字義 혹은 단어로써 접근

첫째 字義로써 추측하여 고증하면, 程士德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⁷³⁾

“豆”字의 考證을 통해 先秦時代에 ‘콩’이라는 개념으로 쓰고자 할 때에는 지식인은 물론이고 늙은 이까지 모두 ‘菽’字를 사용하였다. 先秦時代에 ‘豆’字는 결코 ‘콩’으로 訓하지 않았고, 고기 醬 양식 등을 담는 그릇의 일종으로 사용하였다.⁷⁴⁾ 또한

先秦時代의 유명한 9종의 經書 子書로 통계를 내 보면 그 중에 나오는 99회의 “豆”字는 “조금도 예외없이 물건을 담는 그릇”으로 訓하였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內經》에 있는 ‘豆’字가 모두 ‘콩’으로 訓하였으니 이런 사실로 판단하면 《素問》과 《靈樞》의 成書時代는 주로 漢代이지만, 당연히 결코 그 중에 先秦時代에 쓰여진 부분의 문장과 魏晉時代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部分이 있음을 배제하지는 못한다.⁷⁵⁾(北京中醫學院學報 3:17, 1982)라 하였다. 따라서 《內經》에 비록 앞으로 先秦에서 뒤로 魏晉에 이르는 문장이 있지만, 그 성립과 편찬은 西漢時代에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로 《內經》에 쓰여진 단어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甄志亞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歲首로 판단하면, 《素問·脈解篇》에 “正月太陽寅 寅 太陽也”라 하였고, 《靈樞·陰陽繫日月》에 “寅者 正月之生陽也”라 하였다. 寅月 즉 陰曆 正月로 歲首를 삼은 것은 漢武帝 太初元年(BC104년)에 ‘太初曆’을 반포한 이후의 일이다. 秦代와 漢初에는 모두 顛頊曆을 사용하여 亥月 즉 陰曆 10월로 歲首를 삼았다. 따라서 《內經》은 西漢 武帝 太初元年 이후에 成書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⁷⁶⁾

(나) 一일의 시간 표현으로 판단하면, 《素問》의 <金匱眞言論> <藏氣法時論>에서 ‘平旦’ ‘下晡’ ‘夜半’ ‘日昃’ ‘日出’ 등으로 시간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先秦時代에 이루어진 것이다.⁷⁷⁾

(다) 干支紀年으로 판단하면, 《素問·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이라 하여 干支紀年이 나타나 있다. 東漢 이전에는 干支로 紀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干支로 紀日하였다. 東漢 章帝 元和2년(서기85년)에 四分曆을 반포한 이후에야 干支로 紀年하였다. 따라서 이 篇은 冬寒 章帝 元和2년 이후에 成書된 것임을 알 수

75) “從《內經》中所有‘豆’字 均作‘豆子’講 這一事實來判斷 《素問》《靈樞》成書時代 主要是在漢代 當然並不排除其中也有先秦時代寫成的部分文章 以及成於魏晉的個別部分”

76) 甄志亞, 中國醫學史,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7, p.39

77)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56

73)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84, p.2

74) “需要‘用’豆子’ 這個概念時候 無論是讀書人 還是老百姓 都用‘菽’這個字 先秦時‘豆’ 並不作‘豆子’講 而它是一種盛肉 盛醬 盛糧食的工具”

있다.⁷⁸⁾

(라) 《內經》에 인용된 地名을 통하여 고증할 수 있다.

杭世駿은 “文義淺短 與素問不類 其十二經水篇乃王水時之水名 黃帝時 尚無此名 是此書 乃王水所輯 而託名於古人者”⁷⁹⁾라 하였는데, 이는 《內經》에 인용된 地名으로 그 著述時期를 추정할 것이다.

(마) 《內經》에 인용된 官名을 살펴보아 추정하여 보면, 《素問·靈蘭秘典論》에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肺者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中正之官 決斷出焉 ……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이라 하였는데, 中正之官은 前漢과 後漢代에서는 볼 수 없고, 晉·魏代의 職制에 그 名稱이 있고, 州都之官은 隋代의 職制에서 볼 수 있다. 만약 이 篇이 魏晉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면 ‘中正’ ‘州都’같은 官名은 출현할 수 없다. 또한 甄志亞는 皇甫謐의 《甲乙經》에 《素問·靈蘭秘典論》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음도 이 篇이 魏晉 이후의 작품임을 증명한다고 하였다.⁸⁰⁾

(바) 넷째 《內經》이 종합 醫書로서는 最古의 것이지만, 《內經》에 인용된 문헌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晉代 皇甫謐은 《甲乙經序》에서 “批按倉公傳 其學皆出于素問 論病精微”라고 하였는데, 《史記·倉公傳》에 “臣意即避席再拜謁 受其《脈書》《上下經》《五色診》《奇咳術》《揆度》《陰陽外變》《藥論》《石神》《接陰陽禁書》”라고 하였다. 또한 《史記》에 의하면 淳于意는 高後八年(BC180년)에 楊慶에게 醫學을 배웠고 楊慶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의 古代醫書를 주었다. 그런데 이 古代醫書를 《內經》에서, 특히 《素問》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제 楊慶이 淳于意에게 주었던 古代醫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⁸¹⁾

78)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81

7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9

80)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81

81)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① 《黃帝扁鵲之脈書》: 《內經》에 보존된 脈理와 관련된 論述은 대개 이 서적의 내용일 수 있다.

② 《上經》《下經》: 《素問·疏五過論》에서는 《上經》《下經》을 언급하였다. 《素問·病能論》에서 “上經者 言氣之通天也 下經者 言病之變化也”라 하였는데, 현존하는 《素問·生氣通天論》은 이 부분의 내용을 보존하였을 수 있다.

③ 《五色診》: 《素問·玉版論要》에서 “五色脈變 揆度 奇恒 道在于一”이라 하였고, 馬蒔注에서는 “五色 脈變 揆度 奇恒 俱古經篇名”이라 하였다. 《內經》에서 五色에 관한 논술은 《五色診》에서 나왔을 수 있다.

④ 《奇咳術》: 奇咳는 즉 위에서 열거한 奇恒인 듯하다. 《素問·奇病論》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존하였을 수 있다.

⑤ 《揆度》: 《素問·玉版論要》에 “揆度者 度病之淺深也”라 하였고, 《素問·病能論》에도 “揆度者 切度之也……所謂揆者 方切求之也 言切求其脈理也 度者 得其病處 以四時度之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揆度》은 診斷과 관련된 서적이고 預後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⑥ 《陰陽外變》《接陰陽禁書》: 이 두 서적은 陰陽理論을 논한 서적으로 後者는 房室生活의 節制와 禁忌까지 언급하였다. 이런 내용은 《內經》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⑦ 《藥論》: 이는 藥物學에 대한 전문서인데, 《內經》에 현존하는 12개의 處方에서 어떤 것은 이 서적에서 나왔을 수 있다.

⑧ 《石神》: 砭石에 대한 전문서인데, 鍼刺療法이 그 안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다.

《內經》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략 초기의 작품과 말기의 작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작품의 上限은 戰國時代의 扁鵲時代를 넘을 수 없고, 下限은 西漢의 倉公時代보다 늦을 수 없다. 말기의 작품은 西漢의 中기 말기 내지 東漢時代의 작품이며 어떤 문장은 심지어 魏晉時代의

pp.80-81

작품이다. 여기에서 명확히 지적할 것은 《內經》에서 일부분은 戰國의 中後期에 편집된 것이고, 지금의 일부분은 西漢의 淳于意 이전의 작품이다.⁸²⁾

甄志亞는 상술한 각 서적의 주요 내용은 모두 현존하는 《內經》에, 특히 《素問》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內經》에서 상술한 서적과 관련된 篇章은 대부분 戰國에서 秦漢 사이의 작품임을 논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 백성을 일컫는 말로 살펴보면, 《素問·寶命全形論》에서 ‘黔首’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秦 또는 秦 이전의 칭호이다.⁸³⁾

(3) 文體로써 접근

任應秋는 文體로써 《內經》의 成書時代를 논증하였다. 그는 “先秦의 글은 흔히 韻語로 지었으니, 《五經》외에도 기타 가령 《子文》 《荀子》 《韓非子》 《呂氏春秋》 《鶡冠子》 《鬼谷子》 등도 이와 같으며 《素問》의 <上古天真論> <四氣調神論> <生氣通天論> <陰陽應象> <脈要精微> <三部九候> <寶命全形> <八正神明> <離合眞邪> <刺要> <刺禁> <調經> 등 諸論에서 그 중에 韻語로 지어진 文字가 특히 많으니 모두 後世의 글과 비교할 수 없다.”⁸⁴⁾라고 하였다.

(4) 유사한 文章으로써 접근

《素問·上古天真論》에 “昔在黃帝 …… 成而登天”의 문장은 《史記·五帝本記》와 《大戴禮·五帝德》의 기록과 다만 몇 글자만 다르지 그 뜻은 완전히 일치하는데, 두 書籍의 著作年代가 西漢時代이므로 《黃帝內經》의 成書時代가 春秋戰國 또는 西漢 즈음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西漢시대의 《史記》와 《大戴禮》가 成立된 후임을 알 수

있다.

4. 《內經》의 理論 形成時期를 통한 고찰

《內經》의 理論을 크게 醫學的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內經》의 醫學理論을 古代 醫家の 醫學理論과 비교함으로써 《內經》의 成書時期를 고찰하도록 한다.

(1) 洪元植의 《中國醫學史》에 의하여 《左氏春秋傳》에 나타난 醫學理論을 《內經》의 醫學理論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左氏春秋傳》에 醫緩이 晉侯의 病을 診察하였을 때 “在盲之上 膏之下 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 ……”이라 한 句節이 있는데, 膏盲이란 用語가 《素問》에는 나오지 않고, 다만 <刺禁論篇>에 “藏有要害 …… 鬲盲之上 中有父母 ……”라는 句節이 있으며, 《靈樞經脈篇》에 對한 張·馬의 註釋에 “三椎旁魄戶 膏盲竝四椎而過神堂 ……”이라는 句節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鬲盲이 膏盲의 誤印인지, 아니면 《內經》의 著述時期에는 膏盲穴을 認識하기 以前이거나, 또는 常用穴이 아니므로 論述은 省略하였을 것으로 본다.

《左傳》에는 春秋時 秦人인 醫和가 晉侯의 病을 診察하고, 女色을 節之할 것을 當付하면서 “天有六氣 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 淫生六疾 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 分爲四時 序爲五節 過則爲災 陰淫寒疾 陽淫熱疾 風淫末疾 雨淫腹疾 晦淫惑疾 明淫心疾 女陽物而晦時 淫則生內熱 蠱惑之疾 今君不節不時 能無及此乎 ……”라 한 것이 있는데, 이와 類似한 理論이 《內經》의 여러 곳에서 나온다.

病生於六氣에 對하여 《素問》에서 詳論하였고, <六元正紀大論>에서 五運六氣의 應見하는 六化之正과 六變之紀에 對하여 論하였고, <至眞要大論>에서 六氣分治에 對하여 論하였으며, <六微之大論>에서 六氣應五行之變을 論하였고, <四氣調神大論>에서 “逆春氣則 少陽不生 肝氣內變 逆夏氣則 太陽不長 心氣內洞 逆秋氣則 太陰不收 肺氣焦滿 逆冬氣則 少陰不藏 腎氣獨沈 夫四時陰陽者 萬物之

82)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80

83)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56

84) 先秦之文 多作韻語 除五經而外 他如《子文》《荀子》《韓非子》《呂氏春秋》《鶡冠子》《鬼谷子》等都是如此 而《素問》의 <上古天真論> <四氣調神論> <生氣通天論> <陰陽應象> <脈要精微> <三部九候> <寶命全形> <八正神明> <離合眞邪> <刺要> <刺禁> <調經> 諸論 其中作韻語的文字特多 都非後世之文可以比擬的

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以從其根”이라 하여 四氣를 論하였다.

<陰陽應象大論>에는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이라 하여 病生於六氣에 對하여 論述하였다.

女色傷人에 對하여, <素問·生氣通天論>에 “因而強力(王冰註 強力入房) 腎氣乃傷 高骨乃壞”라 하였고, <痿論篇>에서는 “思想無窮 所願不得 意淫於外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乃爲白淫”이라 하였다.

또 醫和의 ‘天有六氣 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이란 論述을 <素問>에서 찾아보면 <陰陽應象大論>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 南方生熱 ……”로서 詳細한 論述이 있다.

文摯의 行跡가운데 齊閔王을 診療할 때, 일부러 王을 怒하게 함으로써 吐하게 하여 病을 治療한 故事가 있는데, 이것은 <素問>의 <舉痛論>에서 “有病生於氣也 怒則氣上 ……”이라 論한 것이 이와 같은 原理라 하겠다.

(2) <史記>에 나타난 醫學理論을 <內經>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⁸⁵⁾

<史記·扁鵲倉公傳>에는 “扁鵲過齊 齊桓侯客之 入朝見曰 君有疾 在腠理 不治將深 桓侯曰 寡人無疾 扁鵲出 桓侯謂左右曰 醫之好利也 後五日 扁鵲復見曰 君有疾 在血脈 不治恐深 桓侯曰 寡人無疾 扁鵲出 桓侯不悅 後五日 扁鵲復見曰 君有疾 在腸胃間 不治將深 桓侯不應 扁鵲出 桓侯不悅 後五日 扁鵲復見 望見桓侯而退走 桓侯使人問其故 扁鵲曰 疾之居腠理也 湯熨之所及也 在血脈 鍼石之所及也 其在腸胃 酒醪之所及也 其在骨髓 雖司命無奈何”라 하였다. 扁鵲이 齊桓侯에 대해서 辨證論治한 理論은 모두 <素問>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繆刺論>에 “夫邪之客於形也 必先舍於皮毛 留而不去 入舍於孫脈 留而不去 入舍於絡脈 留而不去 入舍於經脈 內連五臟 散於腸胃 陰陽俱感 五臟乃傷 此邪之從皮毛而入 極於五臟之次也”라고 하였다.

扁鵲이 말한 在腠理 在血脈 在腸胃 在骨髓는 完전히 <繆刺論>의 理論을 印象에서 구체적으로 運

用한 것이다. <陰陽應象大論>에서도 “善治者 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臟. 治五臟者 半死半生也”라고 하였다.

扁鵲이 湯熨로 腠理를 治療하고 鍼石으로 血脈을 治療하고 肘膠로 腸胃를 治療하고 骨髓에 있으면 어찌할 수 없다는 理論은 <陰陽應象大論>과 아주 일치한다. 따라서 任應秋는 <素問>의 成書는 扁鵲보다 이후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3) <內經>의 醫學理論을 戰國時代에 成書된 <周禮>에 나타난 醫學理論과 서로 비교하여 論證할 수 있다.⁸⁶⁾

① 四時와 五味와의 關係에 대해서, <周禮·食醫>에 “凡和 春多酸 夏多苦 秋多辛 冬多鹹 調以滑甘”라 하였는데, <素問·金匱真言論>에 “東方味酸 生於春 南方味苦 生於夏 中央味甘 西方味辛 生於秋 北方味鹹 生於冬”이라 하였다.

② 四時와 發病의 關係에 대해서, <周禮·疾醫>에 “四時皆有癘疾 春時有瘡首疾 夏時有癢疥疾 秋時有瘡寒疾 冬時有嗽上氣疾”이라 하였는데 <素問·金匱真言論>에 “春氣者 病在頭”라 하였고, “夏取分腠 治在肌肉”이라 하였다. 이는 <靈樞·寒熱篇>에도 나오는데 分腠肌肉이 모두 癢疥疾이 發하는 部位라고 하였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도 “夏傷於暑 秋必痲瘡 秋傷於濕 冬生咳嗽”라고 하였다. 四季의 發病에 대한 설명이 <周禮>와 <內經>의 내용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③ 五味 五穀 五果 五藥 등에 대해서, <周禮·疾醫>에는 다만 “以五味五穀五藥養其病”이라고만 하였으나, <素問·藏氣法時論>에서 “毒藥攻邪 五穀爲食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爲充 其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라고 하였고, 또한 “肝色青 宜食甘 粳米 牛肉 棗 葵皆甘 心色赤 宜食酸 小豆 犬肉 李 韭皆酸 肺色白 宜食苦 麥 羊肉 杏 薤皆苦 脾色黃 宜食咸 大豆 豕肉 栗 藿皆鹹 腎色黑 宜食辛 黃黍 鷄肉 桃 葱皆辛 辛酸 酸收 甘緩 苦堅 鹹軟”이라 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④ 五氣 五聲 五色的 關係에 대해서, <周禮·

85)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p.11-12

86)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pp.10-11

疾醫》에는 다만 “以五氣 五聲 五色 視其死生”이라고만 하였으나, 《素問》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五氣에 대해서 <平人氣象論>에 “肝藏筋膜之氣也……心藏血脈之氣也……脾藏肌肉之氣也……肺行營衛陰陽也……腎藏骨髓之氣也”라고 하였고,

五聲에 대해서 <陰陽應象大論>에 “肝在聲爲呼……心在聲爲笑……脾在聲爲歌……肺在聲爲哭……腎在聲爲呻”이라 하였다.

五色에 대해서 <五藏生成論>에 “五臟之氣 故色見青如草茲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皂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 青如翠羽者生 赤如鷄冠者生 黃如蟹腹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烏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 生於心 如以縞裏朱 生於肺 如以縞裏紅 生於肝 如以縞裏紺 生於脾 如以縞裏括藪實 生於腎 如以縞裏紫 此五臟所生之外榮也”라고 하였다.

⑤ 九竅과 九藏에 대해서, 《周禮·疾醫》에 “兩之以九竅之變 參之以九藏之動”이라 하였는데, 《素問·六節藏象論》에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라고 하고, <金匱眞言論>에서 “肝開竅於目……心開竅於耳……脾開竅於口……肺開竅於鼻……腎開竅於二陰”이라 하였다. 上竅가 7개, 下竅가 2개로서 그곳에 病變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兩參之’ 해야 한다.

<六節藏象論>에서 “其生五 其生三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人 三而三之 合則爲九 九分爲九野 九野爲九臟 故形臟四 神臟五 合爲九臟以應之也”라 하였는데, 王冰은 “形臟四者 一頭角 二耳目 三口齒 四胸中也 神臟五者 肝藏魂 心藏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라고 注하였다.

이상과 같이 《周禮》에서 말한 것은 간략하고 《素問》에서 말한 것은 상세한데, 《周禮》는 醫書가 아니고 《素問》은 醫書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세하고 자세한 차이는 있지만 두 서적은 그 이론체계가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周禮》가 戰國時代의 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任應秋는 《素問》이 戰國時代의 서적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둘째 《內經》의 理論을 다른 書籍의 理論과 비

교함으로써 《內經》의 成書時期를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1) 《內經》에는 先秦時의 老莊派가 主唱한 “清淨無爲”, “返樸歸眞”, “虛心實腹”, “專氣致柔”의 道家思想이 여러 곳에서 發見된다. 卽 《素問》의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生氣通天論篇> 등에 道家의 思想이 流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陰陽五行論은 《內經》의 主要論旨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陰陽五行說이 醫學에 있어서 理論體系가 戰國末期에 鄒衍 等에 依해 定立되었다고 보는 見解가 있으므로 미루어 《內經》의 著述時代를 推定하는데 一例가 된다.

5. 《內經》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통한 고찰
《內經》의 醫學理論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할 수 있다. 《中國醫學史講義》(1974년판)에서 “戰國시대에는 社會가 급격히 변화하고 政治經濟文化가 모두 현저한 발전이 있었고 學術思想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醫學著作이 출현하였다. 그 중에 《黃帝內經》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醫學文獻 중에서 가장 오래된 書籍이다.”⁸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곧 中國의 고대 노예제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新興지주계층이 정권을 장악한 封建제도가 발흥하게 된 戰國時代를 말한다.⁸⁸⁾

또한 《內經》의 내용으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 이도 있다. 《讀古醫書隨筆》에서는 《素問·疏五過論》에서 ‘脫營’과 ‘失精’證을 論하면서 ‘封君敗傷’ ‘暴樂暴苦 始樂後苦’ ‘故貴脫勢’ ‘始富後貴’ 등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지위와 경제조건의 급격한 몰락으로 감정이 오래도록 억울되어 풀리지 않으므로 ‘脫營’ ‘失精’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⁸⁹⁾

87) 戰國時期 社會急劇變化 政治經濟文化 都有顯著發展 學術思想也 日趨活躍 在這種情況下 出現多種醫學著作 其中《黃帝內經》是我國現存醫學文獻中最早的一部典籍

88)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984, p.1

89)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984, p.1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III. 結 論

앞에서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한 역대의 논란이 된 이유가, 《內經》이라는 서적이 이루어진 시대와 《內經》의 理論이 형성된 시대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內經》의 成書時代를 고찰하기에 앞서 '成書'라는 개념을 前者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內經'의 명칭이 나타난 時代에 대한 文獻으로 考察하면, 《內經》은 東漢의 《漢書·藝文志》에 처음으로 나타나므로 늦어도 東漢時代 이전이다.

2. 《內經》은 先秦時代의 諸家書처럼 韻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兩漢의 音韻이 이미 周秦의 古音과도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魚侯, 眞文, 質物, 魚歌가 先秦時代에 확연히 나뉘어 쓰였으나, 漢代의 작품에서 魚侯, 眞文, 質物, 魚歌가 이미 合用되어 있다. 《內經》에서 魚侯, 眞文, 質物, 魚歌가 合用된 예가 많다. 또한 運氣七篇에서 '明'字는 耕部에, '行'字는 陽部에서 耕部에, '風'字는 收尾음이 [m]에서 [ng]로 바뀐 것은 東漢時代의 音韻 특징이다.

3. 《內經》에서 歲首, 紀時, 干支紀年, 官名, 地名, 인용된 문헌,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하면 《內經》의 成書時代는 위로 先秦에서부터 아래로 東漢에 이른다. 이는 《內經》이 한 時代에만 성립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4. 《內經》의 成書時代와는 달리, 그 理論의 형성은 즉 先秦·春秋戰國·漢代를 걸쳐, 橋·俞·廬·醫和·醫緩·文摯·扁鵲·樓讓·陽慶·倉公 등 많은 醫家들이 口傳된 黃帝의 사상을 推論 敘述하고, 반복 시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內經》을 좀더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처럼 《內經》의 成書時代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內經》에 대한 歷代 注家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參 考 文 獻

1.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 山西人民出版社, 1979
2. 甄志亞, 中國醫學史,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7
3.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4. 郭鸞春 등, 黃帝內經詞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4-5
6.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7.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8. 王琦 等篇,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17
9. 李經緯, 中國古代醫學史略,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李茂如,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1. 李炳基, 漢詩作法,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1996
12. 李雲,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13. 任應秋, 內經研究論叢
1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0
15.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社, 1992
16. 丁福保 周雲青, 四部總錄醫藥篇, 北京, 文物出版社, 1984
17. 程士德, 內經, 中國, 知音出版社, 1984, p.2
1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9.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